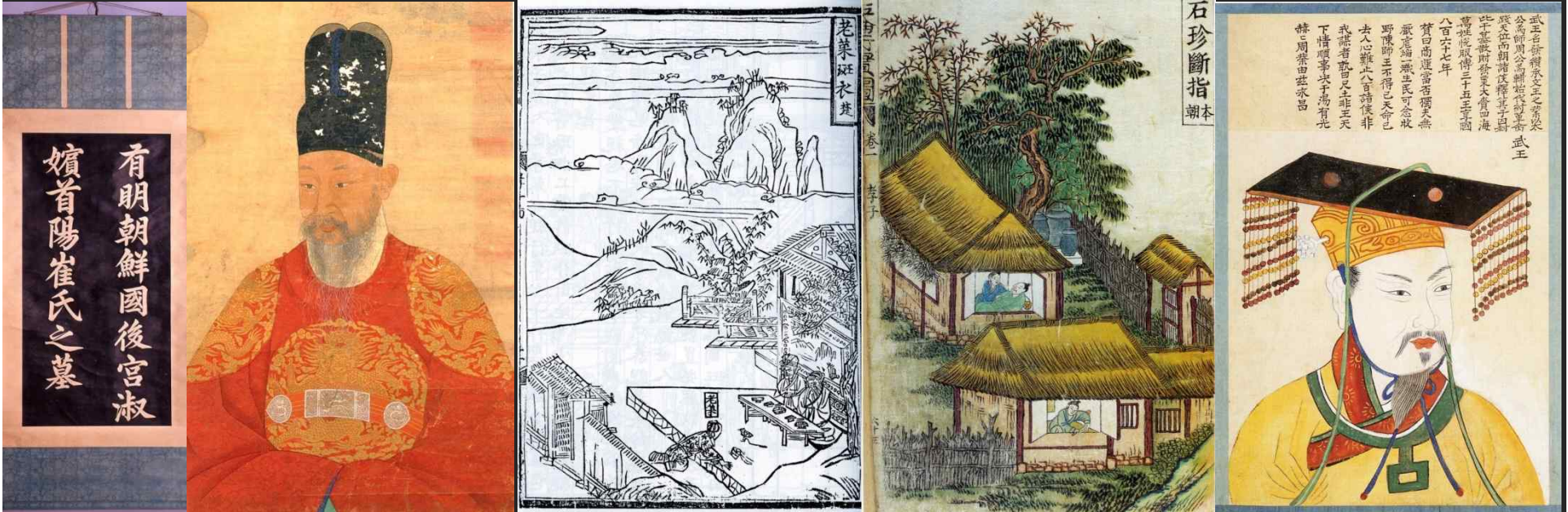


회화자료를 활용한 시각적

인문교육의 모색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문서 토론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검색

한국 기록유산 Encyves

<p>시맨틱 데이터 Network</p>	<p>백과사전 기사 Contents</p>	<p>가상 전시관 VR Pavilions</p>	<p>기사별 관계망 Graphs</p>	<p>전자문화지도 Maps</p>	<p>애니메이션 Graphic Animation</p>	<p>온톨로지 설계 Ontology</p>	<p>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백과사전 기존의 백과사전과 어떻게 다른가?</p>
----------------------------	-----------------------------	--------------------------------	---------------------------	------------------------	------------------------------------	-----------------------------	--

대문
최근 바뀐
임의 문서로
도움말

관리메뉴
한글고문서
궁중기록화
민족기록화
승탑비문
역사인물초상화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뀐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백과사전 편찬

편찬의 목적 및 배경

한국의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연구 자원이자, 한국문화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한국학 지식을 흥미롭게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교재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의 원천 소재를 제공하는 문화산업 자원입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가르치고자 할 때, 유형의 실물이 있는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마리로 삼아 한국학 지식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지식 전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 역량을 집중해 온 '한국의 기록문화 유산' 중에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그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록물들을 찾아서 다양한 수준의 한국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것입니다.

기록물의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관련 인물, 관련 일화, 다른 문화유산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정보화하고, 그 지식 정보 상호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관계망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로부터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자원의 저장소'를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백과사전" 기존의 백과사전과 어떻게 다른가?

2016-2017 편찬 연구 주제: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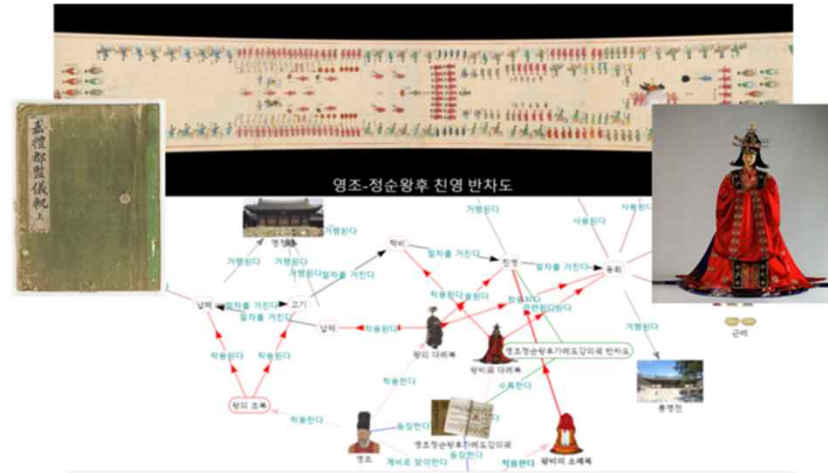
한글 고문헌 가상 전시관

2016 장서각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는 2016년 6월~1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개최한 한글 고문헌 전시입니다. 전시 자료는 한글로 쓰인 고문서 및 고서의 필사본, 목판본, 금속활자본, 석인본, 회화 등 총 155 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 와 재구축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전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55 점의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500여 건의 지식 노드(한글 고문헌 해설 155 건, 고문헌 해독 자료 91 건, 주제별 해설(기획기사) 5 건, 인물-단체 정보/공간 정보/사건 정보/연구저작물-물품 정보/개념어 해설 250 건)를 조사, 편찬하였고,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제작하여 대상 자료의 시대적,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노드 사이의 관계를 담은 지식 관계망을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독자들이 이 가상 전시 콘텐츠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중기록화 가상 전시관

궁중기록화는 조선 왕실에서 거행된 혼례, 진하, 책봉, 능행, 대사례 등의 국가행사 및 의례를 기록한 그림으로, 의례에 실린 반차도와 궁중행사도 등을 말합니다. 의례의 기록은 행사의 준비·진행 절차, 참여 인물, 참여자들이 입었던 복식과 당시 사용된 물품 등 행사 전모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궁중기록화에 그려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당시의 행사 장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인물들이 착장하였던 다양한 복식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36여 편의 대표적인 궁중기록화를 대상으로 삼아 500여 건의 지식 노드(의례 31건, 궁중회화 5건, 복장/복식 177건, 소장처 8건, 물품 120건, 인물 55건, 기관/장소/개념어 146여 건 등)를 발굴하고, 각 지식 노드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살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7여 건의 복장/복식 노드에 대해서는 그것의 형상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보임으로써 왕실의 복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민족기록화는 박정희 정부 시절 '민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67년부터 1979년 사이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의 참여와 정부 지원으로 그려진 기록화들입니다. 개개의 작품은 모두 세밀한 묘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기에, 우리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연상하며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역사 문화 교육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팀은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문예진흥원의 공식적인 지원으로 제작된 104 점의 작품과, 1967년에 제작된 최초의 민족기록화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 점의 작품, 이렇게 총 10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가상 미술관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06편의 민족기록화 작품을 중심으로 502건의 지식 노드(민족기록화 106편, 작가 45명, 소장처 7건, 인물 48건, 단체 73건, 사건 53건, 장소 39건, 관련 문헌 12건, 관련 물품 1건, 문화유산 49건, 개념어 64건, 주제별 해설 5건)를 추출하고, 해당 노드들을 중심으로 의미적 관계망을 시각자료와 함께 구현하여,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역사의 다양한 지식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서 토론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검색



역사인물초상화 기사 목록

역사인물초상화 관리메뉴

전체:출처표기 전체:기사표준형식 전체:틀정리사항 전체:회의록 전체:은돌로지

개관 회의/진행현황 은돌로지 답사촬영 시각자료제작
 중심기사 목록 문맥기사 목록 파블리온 목록 스틸이미지 목록 초상화 이미지 목록 수집 동영상 목록

11월 23일 목요일 13:30, 문형관 103호

11월23일 회의

- 인물 및 초상화 목록 : 인물 100인(승탑비문 중심승려 4인 제외 실제기사 96항목) 및 초상화 152건(신임 초상 1점 추가 반영) + 문맥기사 248건 = 500건

번호	인물명	관련 초상화	개수	생물년	시기	1년차 사업 연관성	비고
001	조선 영조	영조 어진 연잉군 초상	2	1694~1776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002	조선 정조	정조 표준영정	1	1752~1800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003	조선 철종	철종 표준영정	1	1831~1863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004	조선 순종	순종 어진(육군대장복본) 순종 어진 복원모사도	2	1874~1926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005	채제공	채제공 초상(시복본) 채제공 초상(금관조복본) 채제공 초상(흑단령포본)	3	1691~1756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006	조선 태조	조선 태조 어진	1	1335~1408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민족기록화	
007	조선 세조	세조 어진(초본) 세조대왕 진영	2	1417~1468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민족기록화	
008	허준	허준 표준영정	1	1539~1615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민족기록화	
009	류성룡	류성룡 표준영정	1	1542~1607	조선시대	한글고문서, 민족기록화	
010	휴정	휴정 진영(대곡사) 휴정 진영(국립중앙박물관1)	3	1520~1604	조선시대	승탑비문, 민족기록화	

대문
최근 바뀐
임의 문서로
도움말

관리메뉴

한글고문서
공중기록화
민족기록화
승탑비문
역사인물초상화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뀐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 문
- 이름 바꿈
- 이 문서로
- 종말
- 리메뉴
- 한글고문서
- 공중기록화
- 민족기록화
- 승합비문
- 역사인물초상화
- 구
-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 가리키는 글의 바뀜
- 특수 문서 목록
- 고유 링크
- 문서 정보
- 이 문서 인용하기
- 새/내보내기
- 적 만들기
- PDF로 다운로드
- 인쇄용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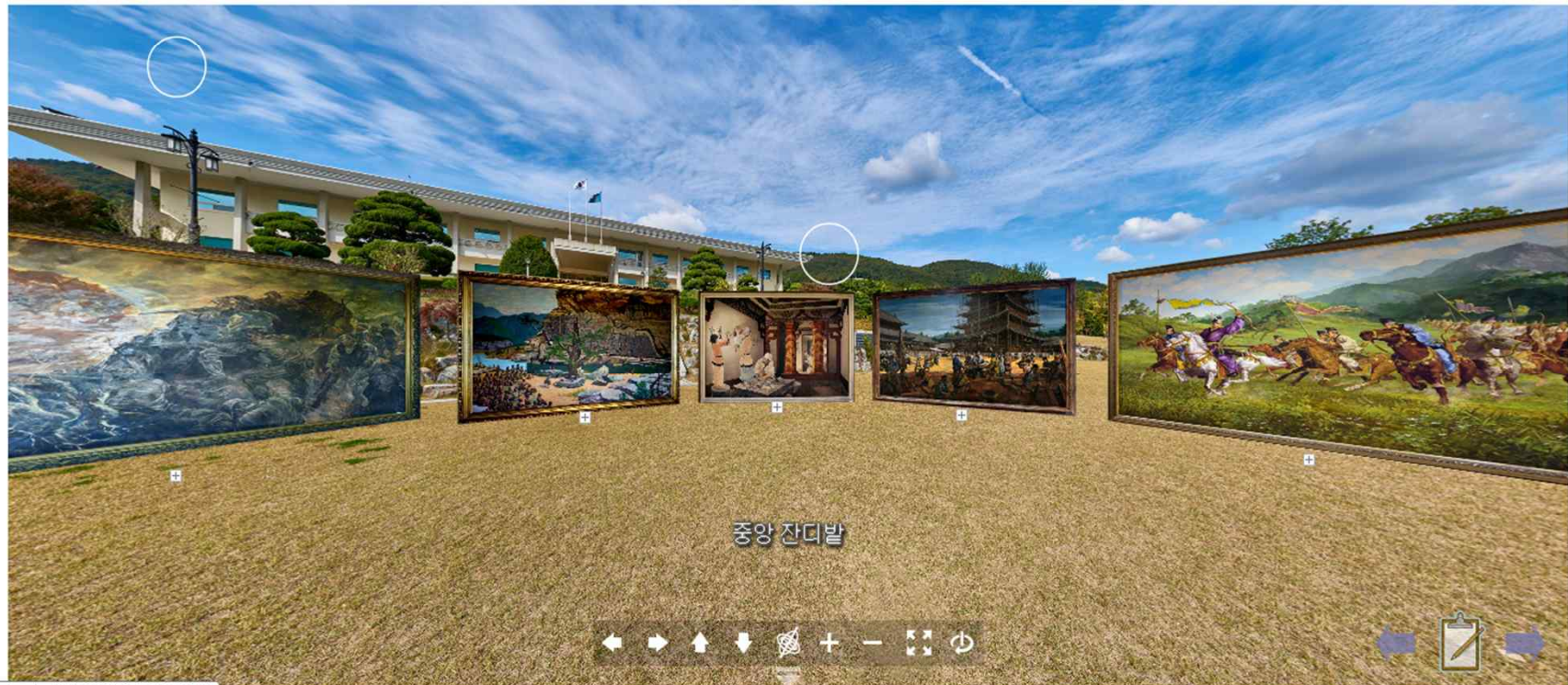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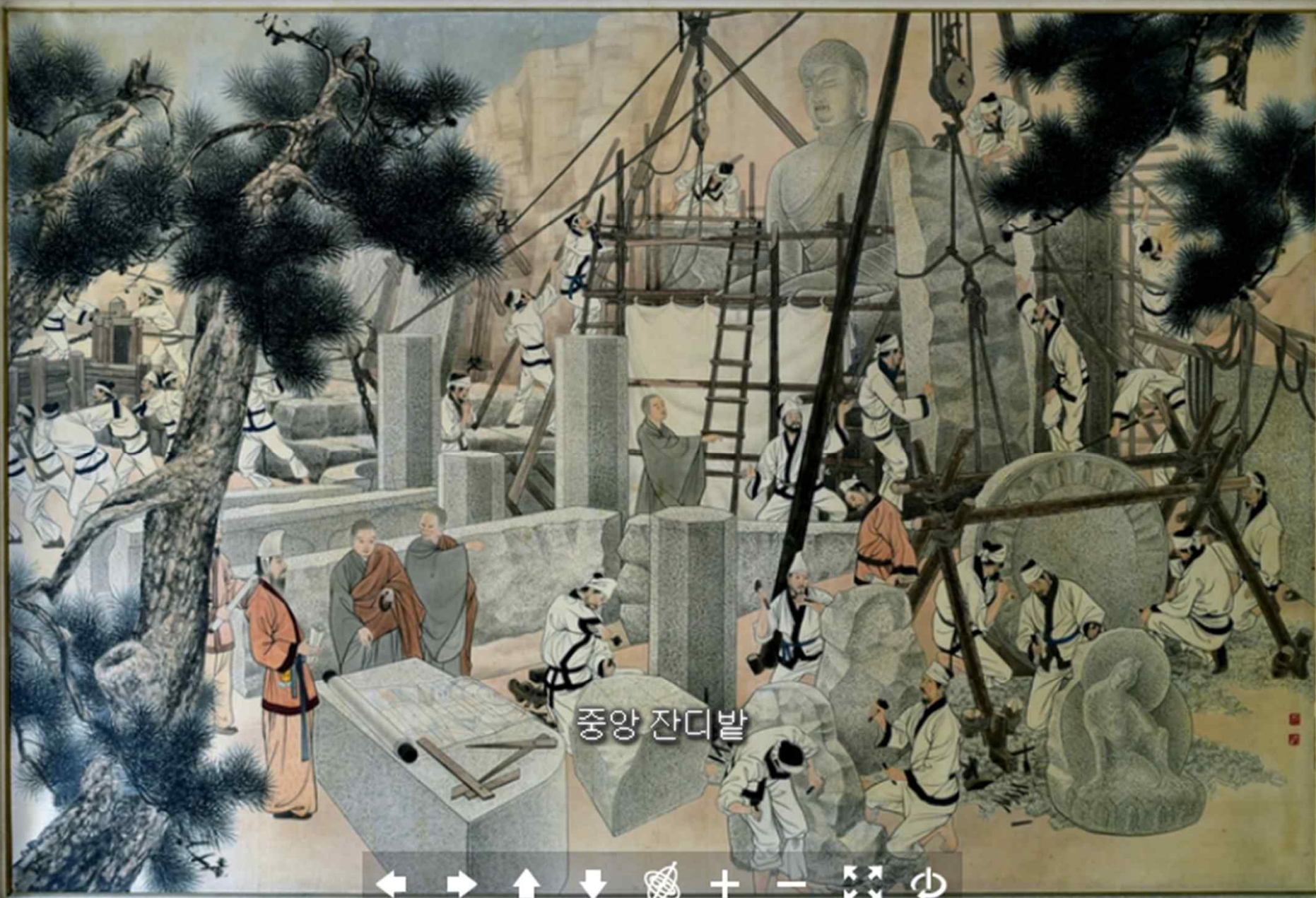
민족기록화는 박정희 정부 시절 '민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67년부터 1979년 사이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의 참여와 정부 지원으로 그려진 기록화들입니다. 개개의 작품은 모두 세밀한 묘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기에, 우리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연상하며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역사 문화 교육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팀은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문예진흥원의 공식적인 지원으로 제작된 104 점의 작품과, 1967년에 제작된 최초의 민족기록화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 점의 작품, 이렇게 총 10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가상 미술관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06편의 민족기록화 작품을 중심으로 502건의 지식 노트(민족기록화 106편, 작가 45명, 소장처 7건, 인물 48건, 단체 73건, 사건 53건, 장소 39건, 관련 문헌 12건, 관련 물품 1건, 문화유산 49건, 개념어 64건, 주제별 해설 5건)를 추출하고, 해당 노트들을 중심으로 의미적 관계망을 시각자료와 함께 구현하여,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역사의 다양한 지식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상 미술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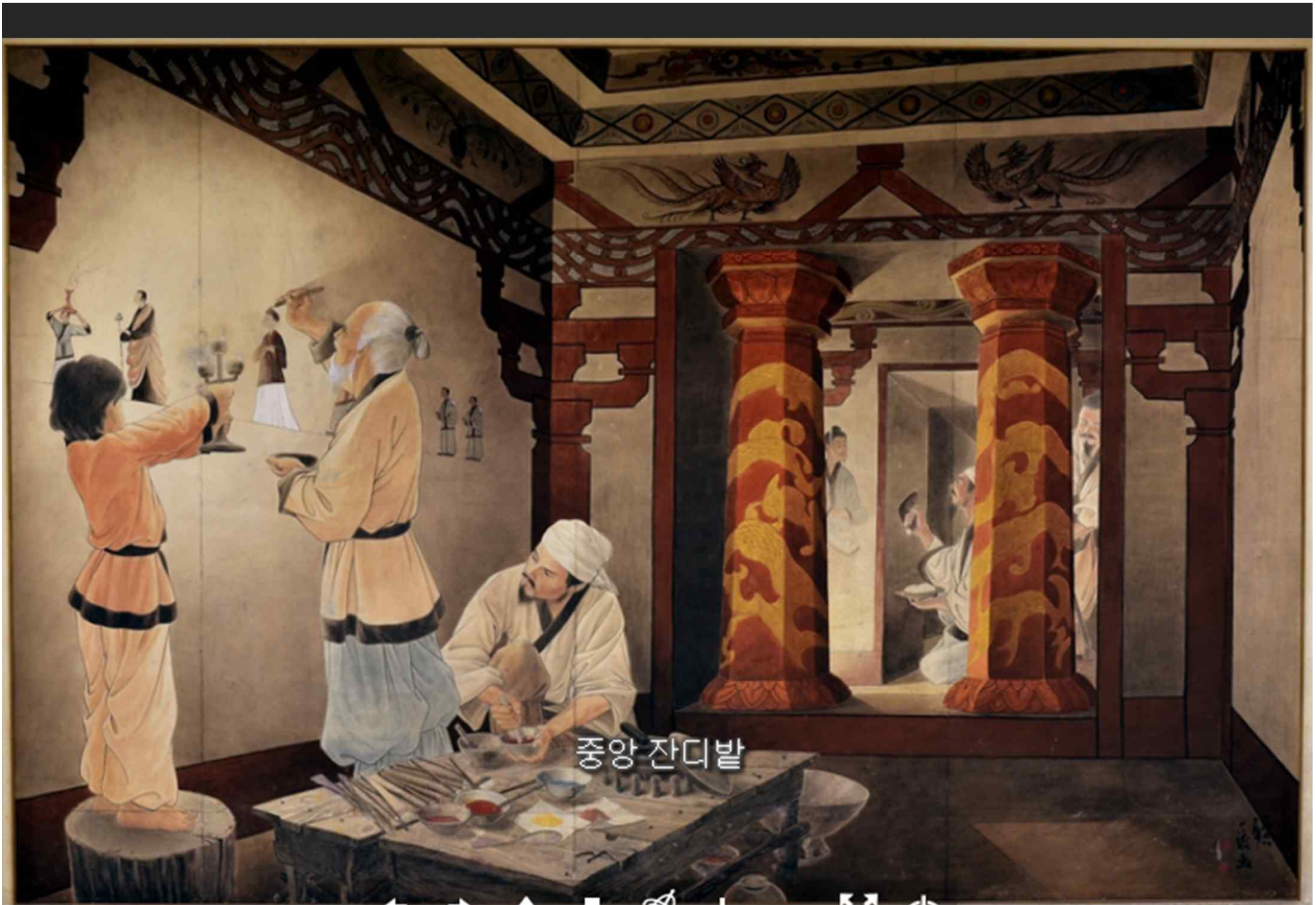


중앙 잔디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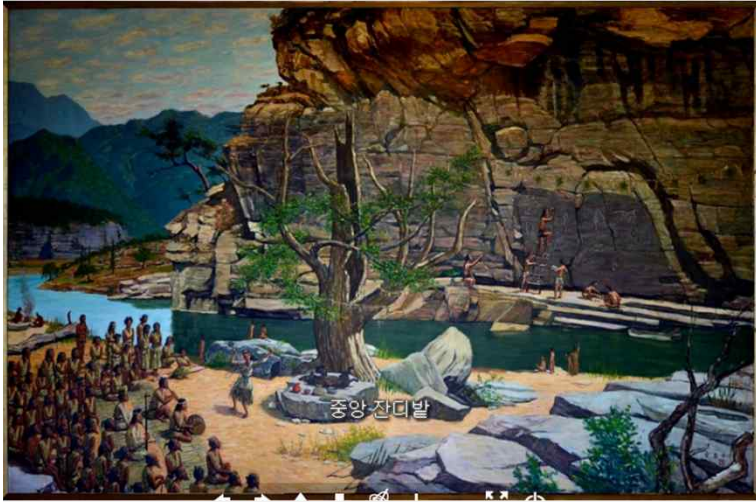
이종상, 김대성과 석굴암, 197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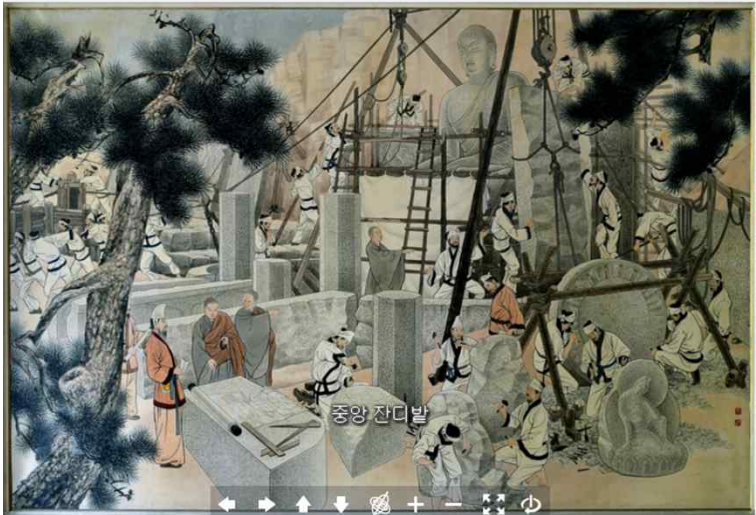
김창락, 울주 반구대 암각도, 197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상, 고구려 고분벽화, 197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락, 울주 반구대 암각도, 1978년



이종상, 김대성과 석굴암, 1979년

이종상,
고구려 고분벽화
1977년



김태,
황룡사의 조영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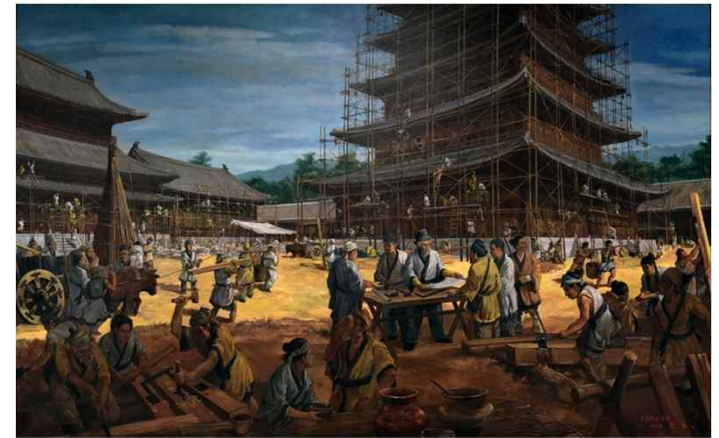
박찬동,
안시성 싸움
1975년



이종상,
고구려 고분벽화
1977년



김태,
황룡사의 조영
1977년



박찬동,
안시성 싸움
1975년

장서각 소장 조선왕실의 탁본(拓本)

장서각 소장 조선왕실의 탁본(拓本)

-조선왕실의 탁본 자료 600여 점
왕릉 표석, 지석, 신도비, 사적비, 어필 등





소령원(昭寧園)



소령묘비 비각(碑閣), 1744년



숙빈최씨 소령원 신도비



영조 어진(御眞),
1900년, 1744년본의 모사본



칠궁(七宮) 소재 냉천정(冷泉亭)



숙빈최씨의 사당 육상
궁(毓祥宮)

지석(誌石) 탁본

有明朝鮮國 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寧陵誌

仁宣王后禮陟之五月治方中既完我 殿下乃降所述 行錄 命臣壽恒撰述 玄宮之誌臣謹拜手稽首受而讀之曰於乎至哉我 聖后之德而 聖上之紀之也誠無間然矣既不獲辭則敢就 行錄纂次而叙之謹按 王后姓張氏其先曰奔龍本中國人當元時以宣武將軍鎮遼管從公主東來仍仕高麗累官門下贊成事食采德水縣子孫曰籍馬入我朝有曰翽漢城府判尹四傳而至王能文章登擢大魁承文院判校贈吏曹參判於 后為五代祖高祖諱任重掌隸院司議 贈吏曹判書曾祖諱逸木川縣監 贈領議政祖諱雲翼刑曹判書亦以魁科登顯後 贈補祚初臣領議政德水府院君考諱維右議政新豐府院君諱文忠公受知 仁祖策靖 社勲文章德行有大名于世配曰永嘉府夫人金氏安東望族忠臣右議政文忠公諱尚容之女一時稱門第者推甲乙焉以萬曆戊午十二月庚辰誕 后于京畿安山之村舍生而端淑不妄游戲六歲祖母朴夫人取而鞠之常隨往季父水原府衙時於暗中思父母啜泣祖母覺而問執拭淚對以他辭不使貽其憂祖母奇愛之 后有兄苦面瘡或言兒災異致金夫人陽為不欲汚手以試 后意 后即手自傅之不見厭惡色文忠公大悅而異之蓋其 至性自秀然也崇禎庚午 孝廟為鳳林大君 仁祖親簡其配見 后周旋應對有則甚賢之 后遂膺選草未秋 嘉禮成封豐安府夫人既 入闈夙夜夔懼孝敬無違最為 仁烈王后所眷愛過四年 出閣居即秉家政綜理井然相內事無纖鉅不敢自專 仁烈王后有姊孀而窮居 后勸採曲有恩意丙子冬寇難入江都明年正月敵兵渡江 宮中尚涕無不痛哭蒼黃 后獨從容整暇言動不少爽人皆服其有守及 孝廟與昭顯世子質于瀋陽 后亦隨行覓危險阻首尾九年所履之不失常度兩宮之間終無間言乙酉始 返國昭顯世子卒 孝廟受 仁祖命陟階位冊 后為世子嬪 后蓋自抑畏飭躬以禮事 上以誠得一異味必先獻于 仁祖已丑 仁祖宵天 孝廟踐阼 后既正位中壺 陰益彰彰聽內職帥嬪御和而穆嚴而惠庶獎樛木葛覃之化然猶小心翼翼持以柔異常日婦而自聖鮮不啻于家國孔難之戒可不慎歟已亥 孝廟疾惟幾 后籲天請代逮至 不諱 哭擗踰禮然於送終之事自大海雲掄以往雖微必親不委之勢御務盡誠信而後已未卒哭只 歎摩弱我 殿下泣請進食則曰自絕其命者誠過矣強飯以求活亦予所不忍也我 殿下嗣位尊

后為王大姬辛丑進 徽 諱曰孝肅當冊寶之上也 后不欲親臨我 殿下至誠固請 后亦體 廟平昔之教泣而許之行禮之日哀動左右至賀禮則竟不受焉每遇災異憂懼形于色 諭我 殿下曰予心猶然爾可急諸所以誠誨者甚切至 后自己丑大感過毀致疾遂回以沈痼嘗屢 幸湖西之溫陽試湯泉少效至甲寅二月 疾愈亟以二十四日戊午 薨于慶德宮之會祥殿春秋五十有七有司議諡法施仁服義曰仁聖善周問曰宣遂上 尊諡曰仁宣又加上 徽 諱曰敬烈明獻先是 孝廟山陵有故至癸丑冬遠于驪州之和濟洞子坐午向之岡至是遵 后治命以六月初四日 附葬于其下以其同原而近也曰釋以 寧陵 后資性貞靜又 襲訓法門動容出辭舉可為儀範雖疾病燕私之際必以禮自持對于姓亦未嘗有惰慢之色於私親雖甚周睦絕不許曲徑干恩內外截如也 孝廟於麟坪大君友愛篤至 后亦待其夫人一出於誠事 慈懿大妃數十年 慈孝無間 宮闈之內和氣融融自 后有疾不得以時進見每歎曰有生何為 大漸之夕 神氣已昏露忽聞 大妃來臨即驚悟促進坐席諄諄告訣柔聲和色雍容若平日猶以不飾而見為恨 遼陵之日 屢車太重多憂華士顛預 后間之愀然曰 先王在天之靈必不安於此矣及女侍自 山陵還問知傷人無多始有和豫色今茲 六引之舍垣而舟蓋亦體 所難而然哉 后誕育一男五女我 殿下聘領敦寧府事金佐明女為妃五公主長曰淑安公主下嫁益平尉洪得箕次曰淑明公主下嫁青平尉沈益顯次曰淑徽公主下嫁寅平尉鄭齊賢次曰淑靜公主下嫁東平尉鄭載崙次曰淑敬公主下嫁興平尉元夢麟淑敬並先卒我 殿下誕生一男三女世子燁聘兵曹判書金萬基女為嬪女曰明善公主明惠公主明安公主明善明惠皆未字而天洪得箕一男沈益顯二男鄭齊賢一男鄭載崙一男一女元夢麟一女洪惟我 寧考威德宏規駕軼百王其惕厲奮發以昭大義於天下者惟承 博厚之德尊配坤元是宜受祿無疆永 享岡陵之壽而昊天不弔 遐莫遽促嗚呼痛哉惟其 徽音懿烈豐昭在耳目者託之琬琰藏于幽隧將典塗葦之盛並垂於萬機猗歎休哉

甲寅六月初四日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金壽恒謹誌

仁宣王后(1619~1674) 지석(誌石), 효종의 정비(正妃)

國葬都監儀軌目錄

座目

承傳附奏啓

狀啓

移文

采關

禮關

儀註

稟目

甘結

物力

賞典

儀軌

一房

二房

三房

表石所附誌石所

虞主所

別工作

分長興庫

分典設司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



윤두서, 돌깨기(채석),
18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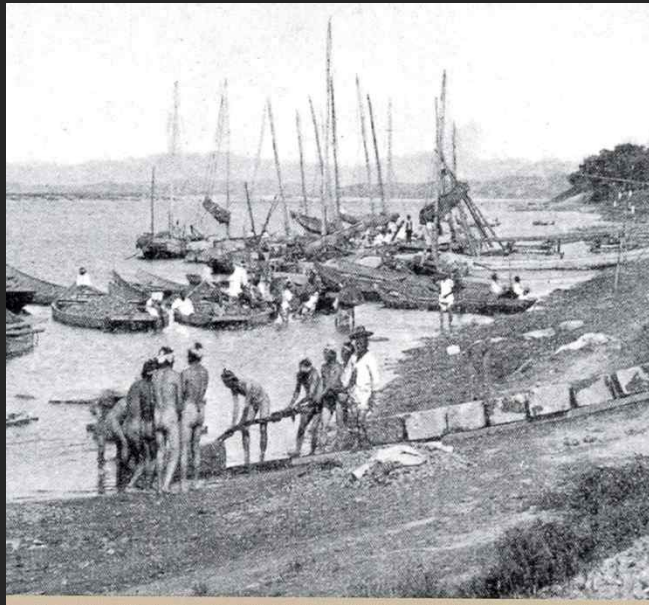
채석장

지석의 제작 공정

- 채석(採石)
- 마조(磨造)
- 서사(書寫)
- 입각(入刻)
- 인출(印出)



석재의 운반



석재의 운반



석재의 연마

孝肅敬烈明
治方中既完
我我聖

朝鮮國

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寧陵誌

禮陟之五月治方中既完我

殿下乃降所述

頌之曰於乎至我我

聖后之德而

聖上之

按

王后姓張氏其先曰舜龍本中國人當元

成事食采德水縣子孫曰籍焉入我朝有曰翽漢

曹叅判於

后為五代祖高祖諱任重掌隸院

翼刑曹判書亦以魁科蚤顯後

贈補祚功臣領

仁祖策靖

社勲文章德行有大名于世配

女一時稱門第者推甲乙焉以萬曆戊午十二月

-1인* 8시간 = 8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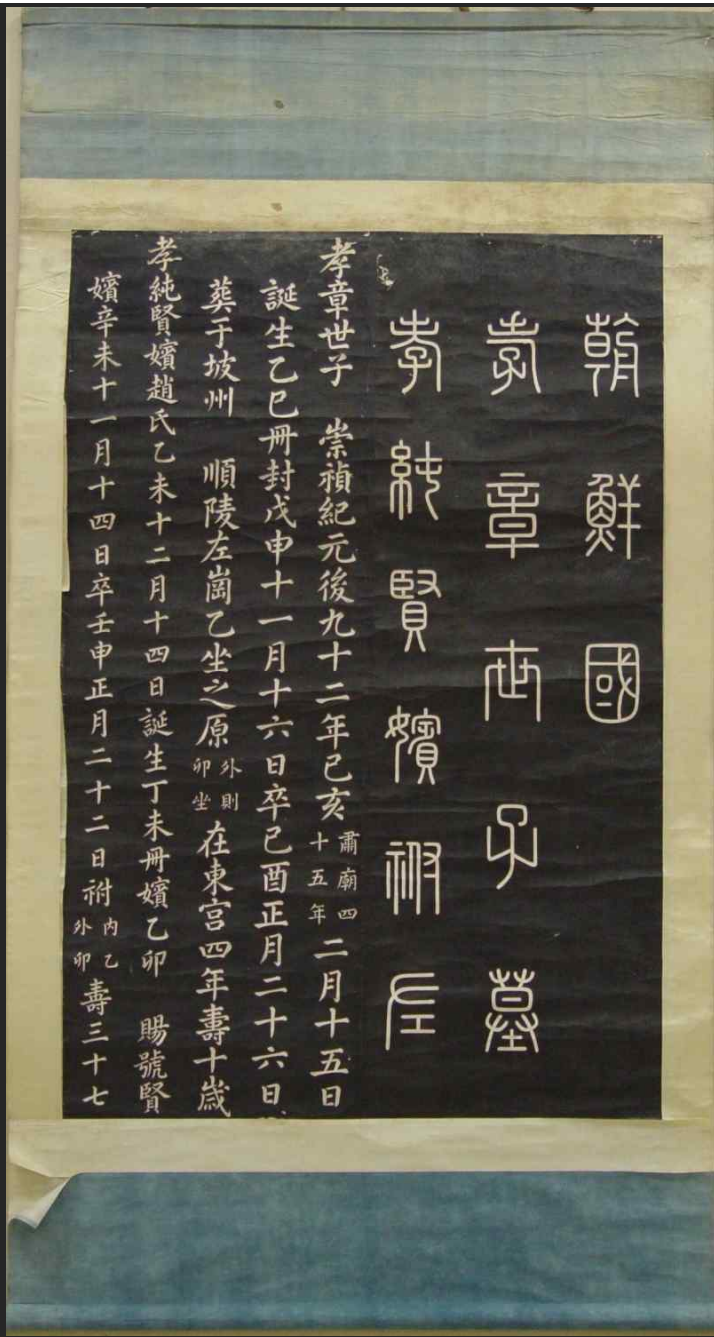
-6인* 8시간 * 3교대

48글자*3=14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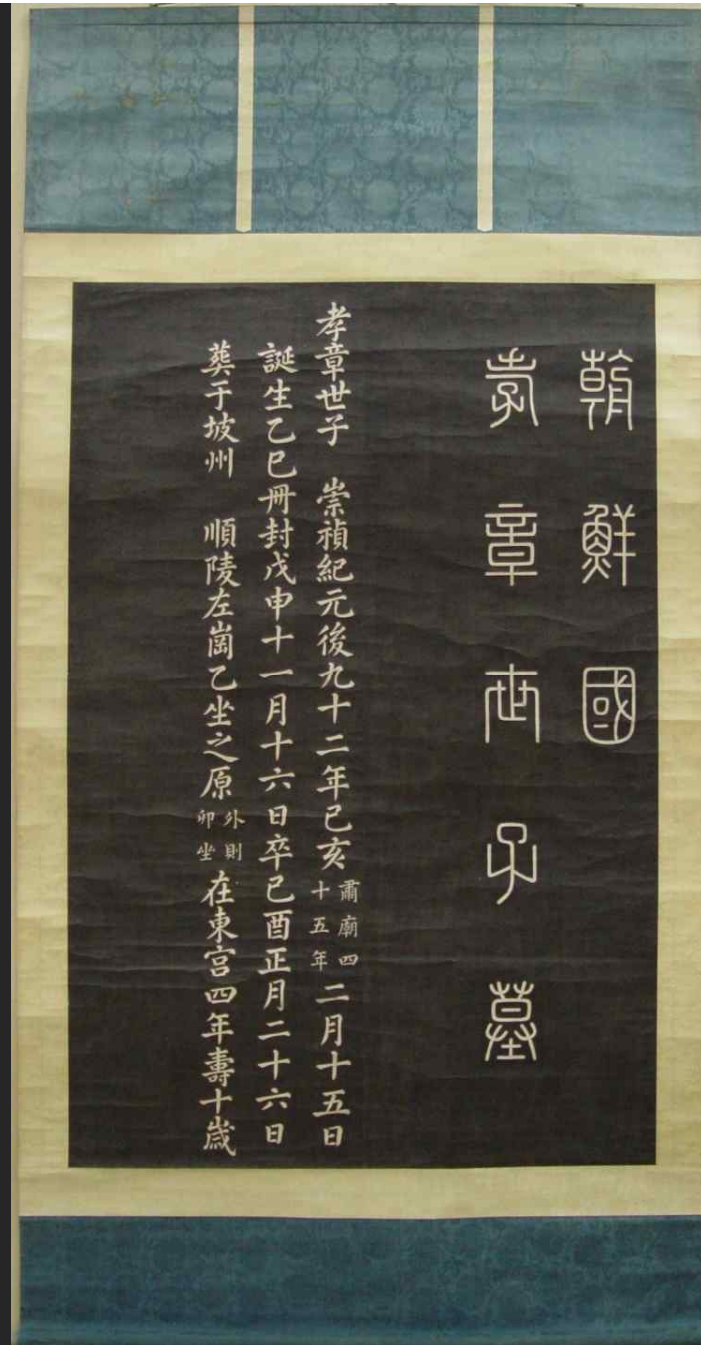
-144글자*15일=2160자

有明朝鮮國 仁烈王后長後誌

惟韓氏出西原籍德姬堂輩發分德之祥蓋稱我東華云其先有諱蘭佐麗祖定三韓官至大尉三重大臣自是發顯瑯琊比五世祖
 繼為李執入我朝有諱尚敬某開國創封西原府院君官領議政再傳而至文靖公繼稱議政府左贊成西平君莊 后為六代祖高
 祖諱承元雅善鄕守 贈在贊成曾祖諱汝媽中樞府經歷 贈領議政祖諱孝胤鏡城府判官 贈領議政考諱汝謙實有持相德業
 歷官八座五道都元帥用圖舅恩例進爵西平府院君領議政宰事配西平府夫人黃氏昌原大族禮曹佐郎 贈奉判諱城之女以
 萬曆甲午七月丁丑生 后生有異質不妄游戲言銳動止迥異凡兒生聞月而黃夫人下世稍長 事西平公最久 候問必先請
 兄弟兩午歲 后年十三會有簡選孺子之舉 宣廟知其賢 命我 殿下聘之既納幣而 宣廟體分越三年庚戌九
 月始行 親迎封清城縣夫人初 后在室嘗夜寢忽若驚而驚者西平公說聞之 后言夢屋宇折開日月從天而下入懷中
 至是將廢聘進齊齋幾殆西平公夢 宣廟謂已曰無憂也疾當自愈已而果然西平公蓋心異之時 元宗大子在空遠邸
 后既入門奉事專誠孝為至待諸小叔恩逾私親號昌福起內外擢侍奉時索無以滿其欲 后益捐養資以應之殊珍瓊寶無少缺
 焉 元宗嘉之登哀靖 社之聲實預容謀曲贊弘多 上既踐大位 后提膺冊禮天啓乙丑 天子遣中書人王敬政
 胡良輔 冊封我 殿下 賜 后 誥命冠服 后既正位長秋母儀一國恭勿陰教者十有三載崇積乙亥冬
 姪娘誕男子子被不育 后傷悼熱作疾遂至以十二月初九日 薨于昌慶宮之麗暉堂 春秋四十有二有司謀讎法施仁義曰
 仁者功安民曰烈遂上 尊諡曰仁烈以明年四月乙酉葬于 長陵在坡州治社十里而還其原枕仰向西 后資性柔順貞靜
 仁孝之德出於天得 仁穆太妃性嚴 后事之起敬起孝以至 旁側長御皆曲致禮意 兩宮慈孝終始無間及 太妃上
 昇哀慕盡禮事 上一於收順 上或不豫則 坐而待曙而無隨事職規多所裨益 上嘗觀覆舟圖 后進言曰願
 上覽此思危懼毋令徒為玩具而已 上或欲修治苑囿 后輒不悅 上為之親役者屢矣 上或特遣言官 后諫曰言
 難不中官以諫名履歷之階不惟公議恐累 君德而妨言路也尤嚴於內外之令朝政外事不欲與聞未嘗易外家希求 恩澤親
 屬或累擬未 黜而不為一言即有得官者 后或去之知 上亦不省其為何人也宮闈之內前雖整齊 動容出靜自中儀則
 雅志嚴儉不喜華飾不事蓄藏 慈愛諸子無不至然 教之必以義方 周恤親戚恒先內而後外 御下寬平嚴而有惠教儀張氏之
 八也 恩養優洽逮下之仁人皆悅服陰囊或暑 飲念衛士辛苦時致餉賜 昇遐之日雖當開婦孺靡不奔走鞠慕焉 后誕育
 三子 王世子謹以世適居儲厥次鳳林大君深次麟坪大君潛 周恤親戚恒先內而後外 御下寬平嚴而有惠教儀張氏之
 麟坪監校理具端女臣親自普帝王之典必有賢妃德后輔相內治故 十亂之列有婦人焉恭惟我 殿下受命穆濟 真安 宗
 社而 后天作之合容實鳴堂合章配德順承乾極得見 孝敬之教慈仁之化重茲聖運協于闈離麟趾之風以成我東方太平無
 疆之休而同慶之 普天竟斯萬嗚呼嗚呼臣雖祗奉 教音慕次 德行勸石 京宮永厭無極云
 崇禎九年四月十一日謹誌



孝章世子墓碑(합봉비), 1752년(영조 28)



孝章世子墓碑, 1729년(영조 5)

有明朝鮮國孝章世子墓誌石

御製御筆有明朝鮮國孝章世子墓誌
 續趙氏豐蔭后文命女乙未十二月十四日生子宗教坊恭第
 世子諱諱寧聖敬己亥歲二月十五日申時生于輔化坊影善宮恭第及其姪孫見瑞萬集于室
 禮見金龜馬印靖熾孝氏所誕也甫數歲有若成人行動舉止超乎凡兒幸也秋來備入闈也世子年晚
 三歲故知冲之年越未能同結闈中始留私第奕遊戲之中夢醒之間頻呼也或曰呼者孝觀之心
 稜於天性故也其冬入闈之禮特於 東朔 兩殿也晚膳正坐應對如響 三殿奇慶之中展冬始對
 敬美君已巳春進丹備副祀年甫七歲而及夫夫庭行禮正堂受賀動容周旋無不中禮是亦性之然
 也豈常散而及哉方在冲年矣此歡極而非特持持宮僚庶居與中官庶僚若夫人未嘗遊戲馬一日小
 內官兩人相與言恭舉措不謹故世子整視良久括他中官而言曰此內官謂更勿待中官莫如其故請
 問其故乃曰儀於余前相語不恭故也中官請以此稟于大朝警飭焉則始許其過次之聞遲容嚴肅若
 此也且於平時與中官講學書字也不與年六內官避而每與老成中官處焉其起于常情一如也九儲
 既好其無潛心而常曰雖可觀者一見足也何宜心爾自空觀進問展體此亦一覽而已置諸書堂委身
 少一內官見而偶傷以此告于子以事出無情勿問矣世子從傍而笑焉子頗問其由對曰此激助也而
 同激物猶罰人是以笑云故子不覺心數而自喜曰世子能處寬容若此比吾東之福矣半講者經履操
 子予予問孝者何事對曰事親盡道者孝矣其得善者若此也於曾廷呂對官官而達者其或美焉或而
 使者前而講者則及夫講畢問于左右曰前讓官官之言其何相違且所陳者非孝經某書小學某篇而
 在者耶其潛心聽焉常時留意可知也丁未春楊 先聖生于學同年秋九月行冠禮又同月行照禮時
 九歲而講齊請朝勅容禮節備若成人六禮之日 氣洪清明心自喜曰不見其形而察其影凡事雖乎

孝章世子墓誌文, 1729年(영조 5)

“애통함을 생각하니 마치
살을 베는 듯하여...
아, 이 회포를 어찌 풀 수 있겠는가
슬프고 슬프도다”

一日之暇而自丹封與夫入學冠嘉之日日皆清朗而夜朝雖陰及夫行禮每也如此 天祐 宗枋可
以仰料予雖涼德東國其庶幾豈意今日遽以逝焉興言及此不覺長吁每當新物不忍先嘗必皆獻之
雖有疾恙不至重焉則必盥洗衣帶而見予焉每當 國忌以其冲年若不備素饌則以中官呂掌膳官
人嚴辭諭焉內外之人莫不動色矣友愛同氣亦由本然關中事例所處異焉頻頻往視而左右宮人若
有不協之言世子痛其或流聞焉欲泣告予其孝友之性一若此也且凡事有未安之事則不以遽色以
中官嚴正曉諭官人莫不畏以歎服焉嗚呼疾焉也聞其師之入來幡然起坐更以欽容又聞賓容之入
敬起而力未能焉此亦可見平日性品也一疾沉綿之後補瀉相臨醫藥罔效歎聲告予曰世無名醫難
試諸藥徒致煩苦願勿更藥從容自靜焉其却乎陳根付之天命若非老師宿儒達理者所可及也及夫
臨輦予以類接類呼而知予夫云則激激應聲眼淚霑腮洞洞孝心不泯于耿耿中故也嗚呼痛矣戊申
十一月十六日夜時薨逝于昌慶宮之進脰堂即私忌日也壽甫十歲居貳極者纔四年矣同年十二
月初二日議謚曰孝章己酉年正月廿六日以禮葬于坡州奈里洞乙坐辛向原 順陵左崗也嗚呼予以
匪德而恃者惟元良而性又若此冀東方萬年之福矣何意年纔一旬至于此境言念 宗社痛尤難抑
今竊行錄只述平日表表者豈一字一句誇乎本事予雖不學不為此也皆中官之所共聞朝臣之所共
親者也至於夢瑞雖近傳瑞前後謚狀已有此等語而俱予而夢也略記于初焉嗚呼哀痛之中思焉若
割略略換焉而因大臣陳達不以詞臣更撰誌文而只以行錄添補如干文字親寫入石藏于幽室嗚呼
此懷庶可伸也夫嗚呼痛哉嗚呼痛哉

外向卯坐自向用虛左之制

歲 皇明崇禎紀元後一百二年予即祚五年春正月 日親製自寫

孝章世子墓誌文, 1729年(영조 5)

有明朝鮮國孝純賢嬪墓誌

御製御筆有明朝鮮國孝純賢嬪墓誌

孝純賢嬪趙氏系出豐壤始祖高麗開國功臣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益十一代祖府使贈司僕寺正慎我太宗以龍潛甘盤之舊命給守塚軍高祖贈判書珉曾祖贈左贊成相鼎以判書珩子為珉後祖都事贈領議政豐興府院君仁壽先正文純公朴世采門人考奮武功臣左議政豐陵府院君文忠公文命妣貞敬夫人李氏謙寧大君後同知中樞府事贈參判相伯之女李夫人夢有人授彤華遂生嬪于東部崇教坊寔我聖考乙未十二月十四日也容顏端雅粹潔性度溫良貞一自幼遊戲異於凡兒予即作三年丁未選為孝章世子嬪雖在冲年其於問安侍奉之節必誠必敬我兩慈聖嘉之愛之嗚呼痛矣嘉禮翌年仲冬十六日孝章天逝自古豈無青孀而其有如嬪者乎喪出之日委席哭泣勺水不入口予萬般開喻則嬪飲泣而對曰既無其後生何為乎予揮涕有答語慈聖至誠勸勉嬪雖勉強而或啜居喪執禮無異成人五時祭奠躬自看視氣常懷綴揆過三載初豈料狀其尤痛者加笄于裹服中也自戊申以後舅婦相依而慰懷今則嬪雖有歸依予則其將何慰嗚呼嬪雖無世念而事上之節一心匪懈恒抱難醫之奇疾而諸般起居之禮一如前日宣懿國恤在於闕服之年嬪尤悲慟究其心彌切憾焉嬪性本澹泊不喜華美居常恬然怡然而其執心之貞確處事之周詳無愧於有識君子其叔為相心常悶焉聞解則喜聞拜則感眉造標識公與私兄弟之妻凡問安書札憑此為驗而必使其家長然後乃入其謹嚴可見也豐陵與夫人之喪荐出數年之內以嬪孝心充何堪焉猶能支撐于今其亦幸矣而其歆先歸即嬪至願于今遂願同月以歸嬪何憾也而予所慟者世孰無舅婦而未有若予

純賢嬪墓誌石

與嬪者矣舅婦相為知心今至二十有五年又諫知之孝婦從今以往追慕之懷悲疚之心復將語誰而瀉懷恒日誠孝難以筆記若其大略則常時自奉不過數器亦甚齟齬而予所嗜者不忍食焉逆者悶予少食若臨其官諸饌必極滋味誠孝所致能感侍御繞坐而膳隨至先期烹飪其若豫知雖房內坐榻恐其搨之或冷鋪榻下而取溫雖以身溫被之孝何以加此一日飯不過一次匙不過數舉所食者惟予餘膳而予多食則喜而多食只下筯則悶而不食以予所食親自熟粟長逝之日有所歆尚在于盤盞歎進而疾焉不能吁亦痛矣嬪於今年為予用心尤過予往見而回則必隨至門或恐予知不履而隨者多豈其心動而然歟嗚呼痛哉動駕經夜之日則不解衣而坐沿路傳語恐人踐踏聚以裹封書以年月此亦敬謹之一端也昨年溫幸時膳續于途偶得小紙於篋笥中排日以記又書所送之人予見痛泣親納梓室噫孝章之忌日即嬪私姑忌日也每逢其月前期行素吐黃之證積年所崇而欲歸於同日乃其志也疾焉之夜初昏以前勸予水刺報漏以淚只聞今將逝矣之一聲不復聞勸進矣嗚呼痛哉戊申和淚作孝章之行錄今此孝婦行錄又復和淚而記遙望蒼蒼只自摧腸辛未十一月十四日隔孝章忌一日薨逝於昌慶宮之宜春軒即建極堂之東室而予故居也嬪得年三十七命號賢嬪在於乙卯而壬申正月十一日賜謚孝純哀我孝婦得其謚矣其月二十二日附于孝章墓左乙坐而外封亦向首依戊申例以行錄作誌文亦令集撰予所寫孝章誌文字補其闕字以鶴予今衰暮前後作子與婦行錄心雖無憾愴舊悲今慟懷曷喻泣涕呼寫夜如何其深刻以藏永垂于後

時 皇明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予即作二十七年辛未仲冬識

孝純賢嬪墓誌文, 1751年(영조 27)

純賢孀墓誌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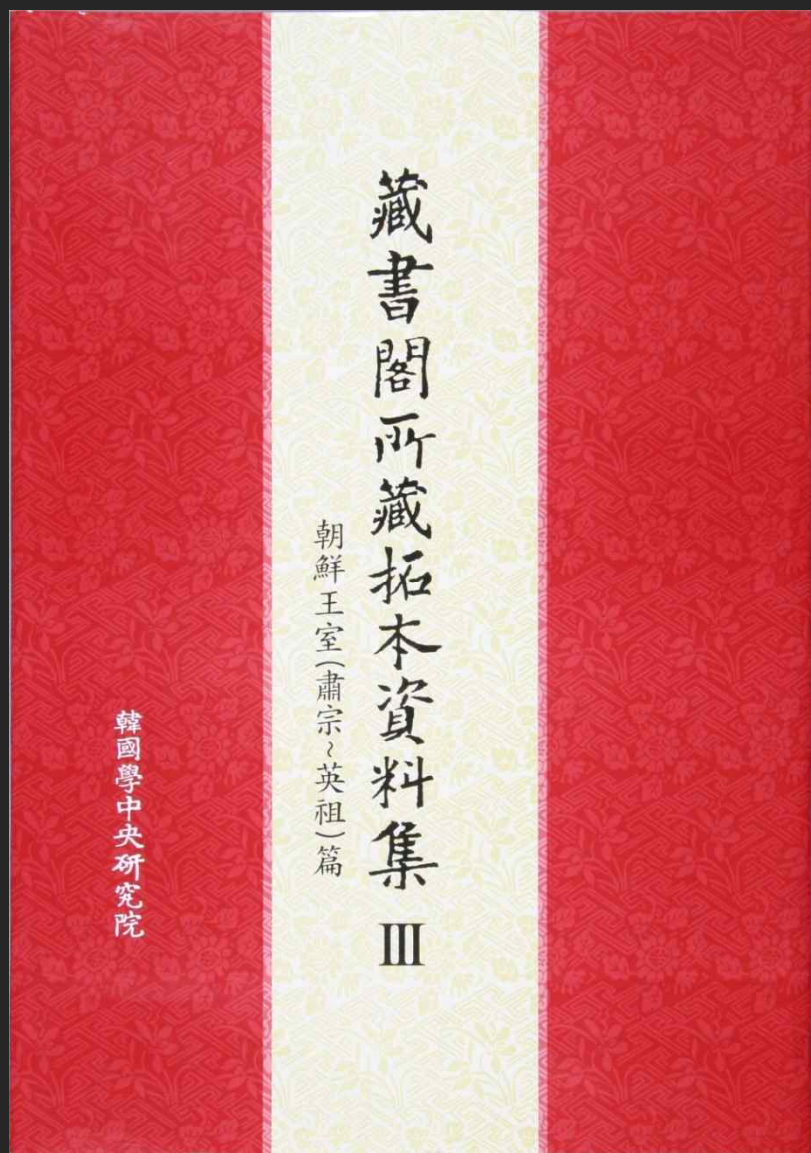
“戊申年에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孝章의 行錄을 지었는데, 이제 이 孝婦의 行錄을 또 다시 눈물에 젖어 기록하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니 다만 스스로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중략)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면서 쓰노라니 밤은 어찌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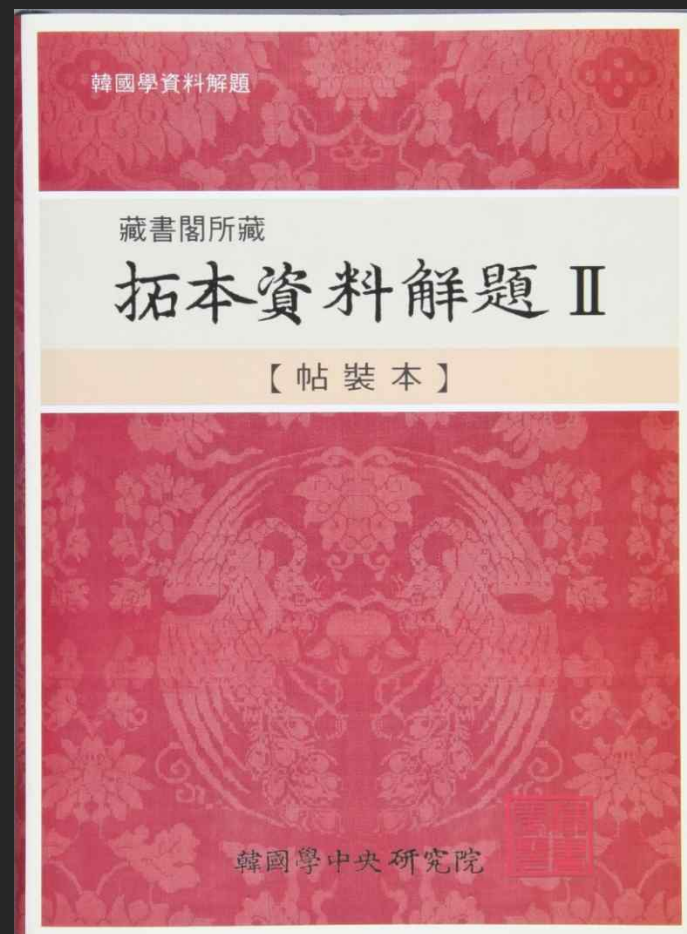
與孀者矣舅婦相為知心今至二十有五年又諒知心之孝婦從今以往追慕之懷悲疚之心復將語誰而瀉懷恒日誠孝難以筆記若其大略則常時自奉不過數語亦甚齟齬而予所嗜者不忍食焉逆者閱予少食若臨其官諸饌必極滋味誠孝所致能感侍御纒坐而膳隨至先期烹飪其若豫知雖房內坐榻恐其握之或冷鋪榻下而取溫雖以身溫被之孝何以加此一日飯不過一次匙不過數舉所食者惟予餘膳而予多食則喜而多食只下筯則悶而不食以予所食親自熟粟長逝之日有所歟尚在于盤盂敬進而疾焉不能吁亦痛矣孀於今年為予用心尤過予往見而回則必隨至門或恐予知不履而隨者多豈其心動而然歟嗚呼痛哉動駕經夜之日則不解衣而坐沿路傳語恐人踐踏聚以裹封書以年月此亦敬謹之一端也昨年溫幸時膳續于途偶得小紙於篋笥中排日以記又書所送之人予見痛泣親納梓室噫孝章之忌日即孀私姑忌日也每逢其月前期行素吐黃之證積年所崇而欲歸於同日乃其志也疾焉之夜初昏以前勸予水刺報漏以浼只聞今將逝矣之一聲不復聞勸進矣嗚呼痛哉戊申和浹作孝章之行錄今此孝婦行錄又浼和浹而記遙望蒼蒼只自摧腸辛未十一月十四日隔孝章忌一曰薨逝於昌慶宮之宜春軒即建極堂之東室而予故居也孀得年三十七命號賢孀在於乙卯而壬申正月十一日賜謚孝純哀我孝婦得其謚矣其月二十二日柩于孝章墓左乙坐而外封亦向首依戊申例以行錄作誌文亦令集模予所寫孝章誌文字補其闕字以鶴予今衰暮前後作子與婦行錄心雖無憾愴舊悲今慟懷曷喻泣涕呼寫夜如何其深刻以藏永垂于後

時 皇明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予即作二十七年辛未仲冬識

孝純賢孀墓誌文, 1751년(영조 27)



2006년 출간



2005년 출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세종의 백성교화 프로젝트

『삼강행실도』에 실린 그림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한 가상의 풍속화이다. 그러나 효자도 속의 장면들은 현실 생활과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적극 공감할 수 있는 효행풍속으로 이해되었다.



15세기 조선
강력범죄로 흥흥해진
민심을 바로잡고자 했던 세종

- 1428년(세종 10) 김화(金禾)의 아버지 살해 사건 발생
- 형율(刑律)이 아닌 교화(教化)의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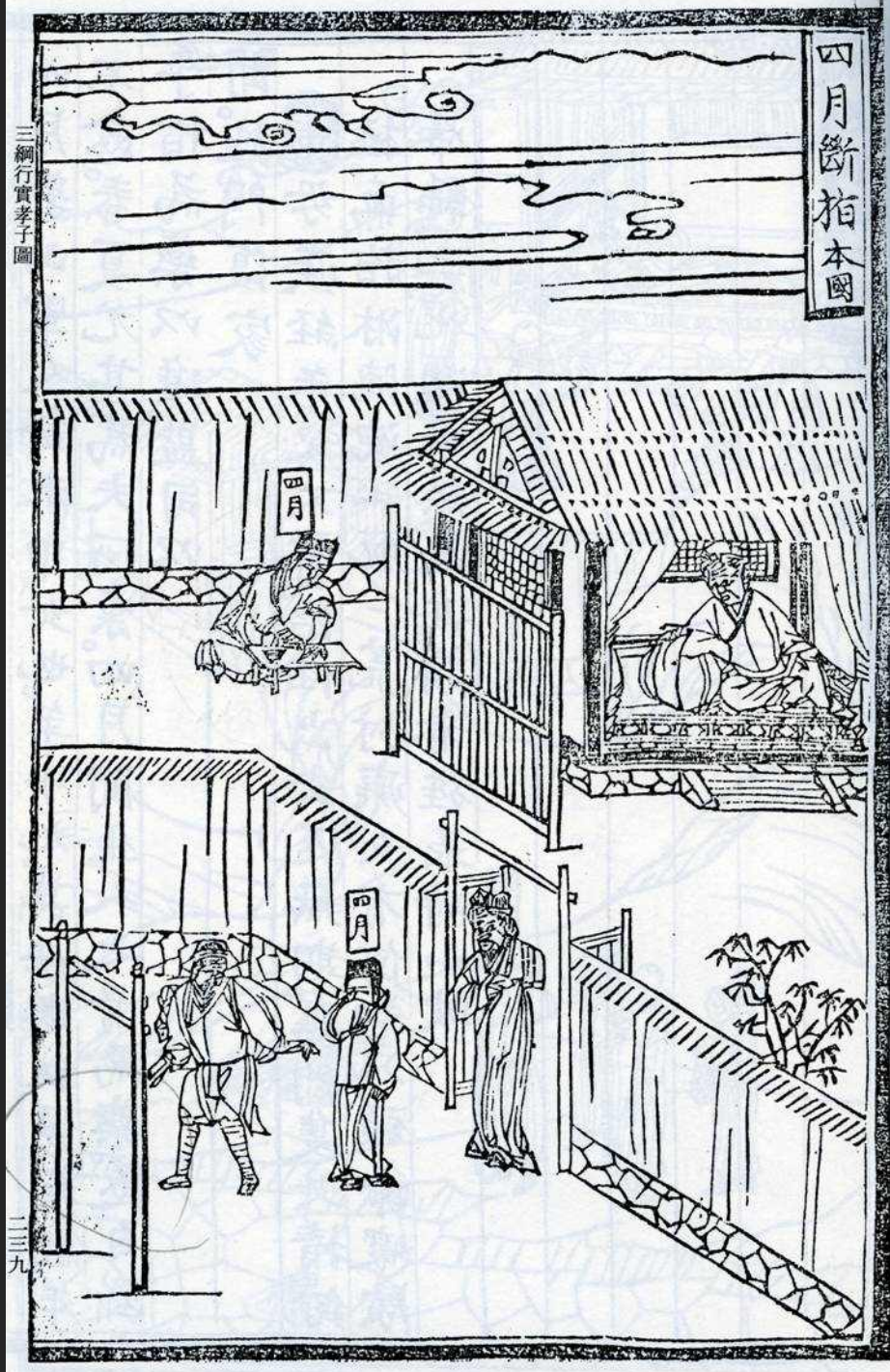
본받을 인물을 가려 뽑아
민심을 다스릴 책의 편찬

<http://hyundai.history.com>

- 한·중(韓·中)의 서적에서 충신, 효자, 열녀 각 110명씩 330명을 수록
- 1434년(세종 16), 『삼강행실도』가 완성.
-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도 삼강의 윤리를 알도록 그림을 수록

세종시대의 윤리교과서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四月斷指本國

三綱行實孝子圖

“삼강행실도”, ‘효자편’
<사월단지(四月斷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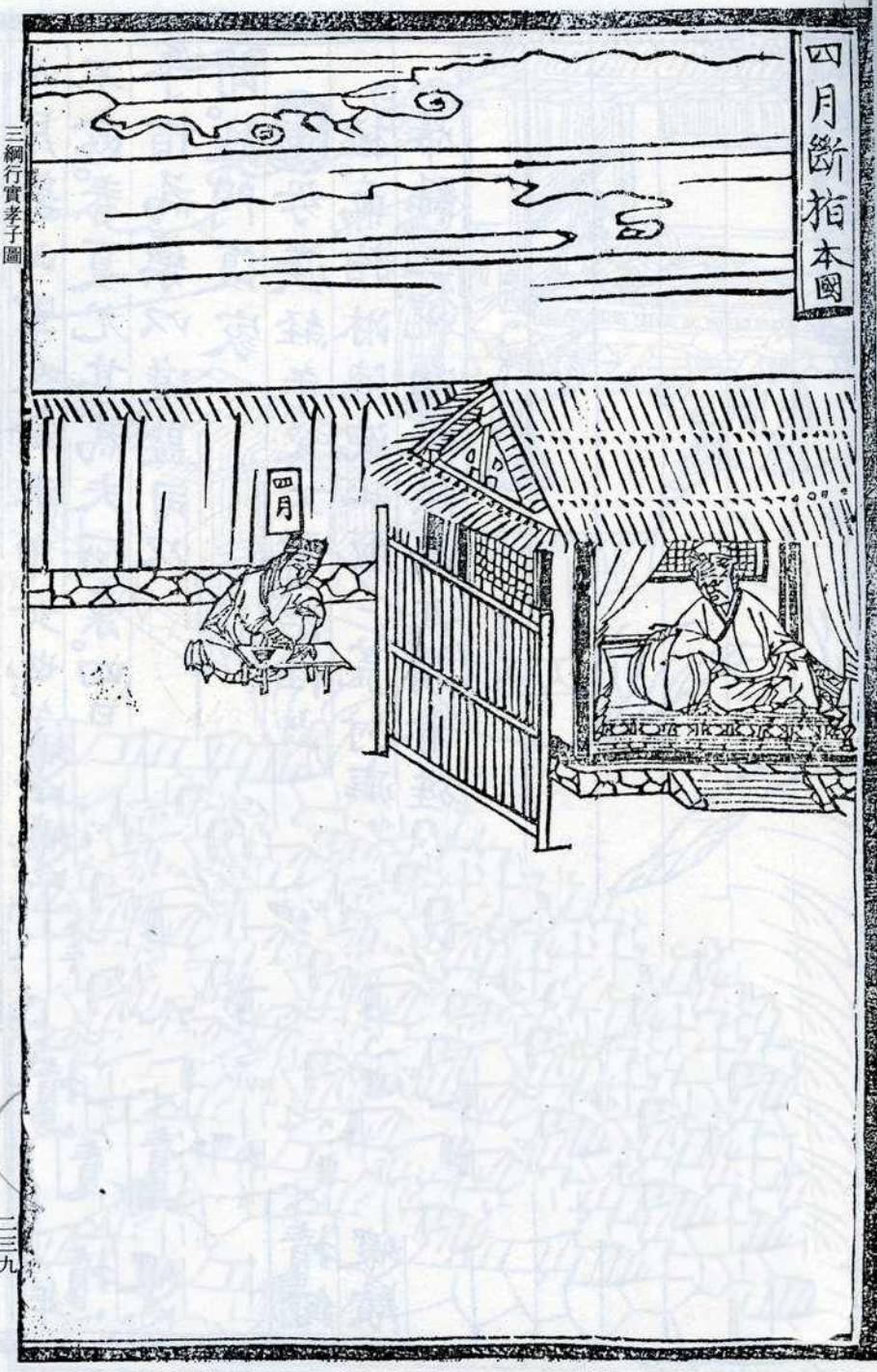
四月斷指本國

三綱行實孝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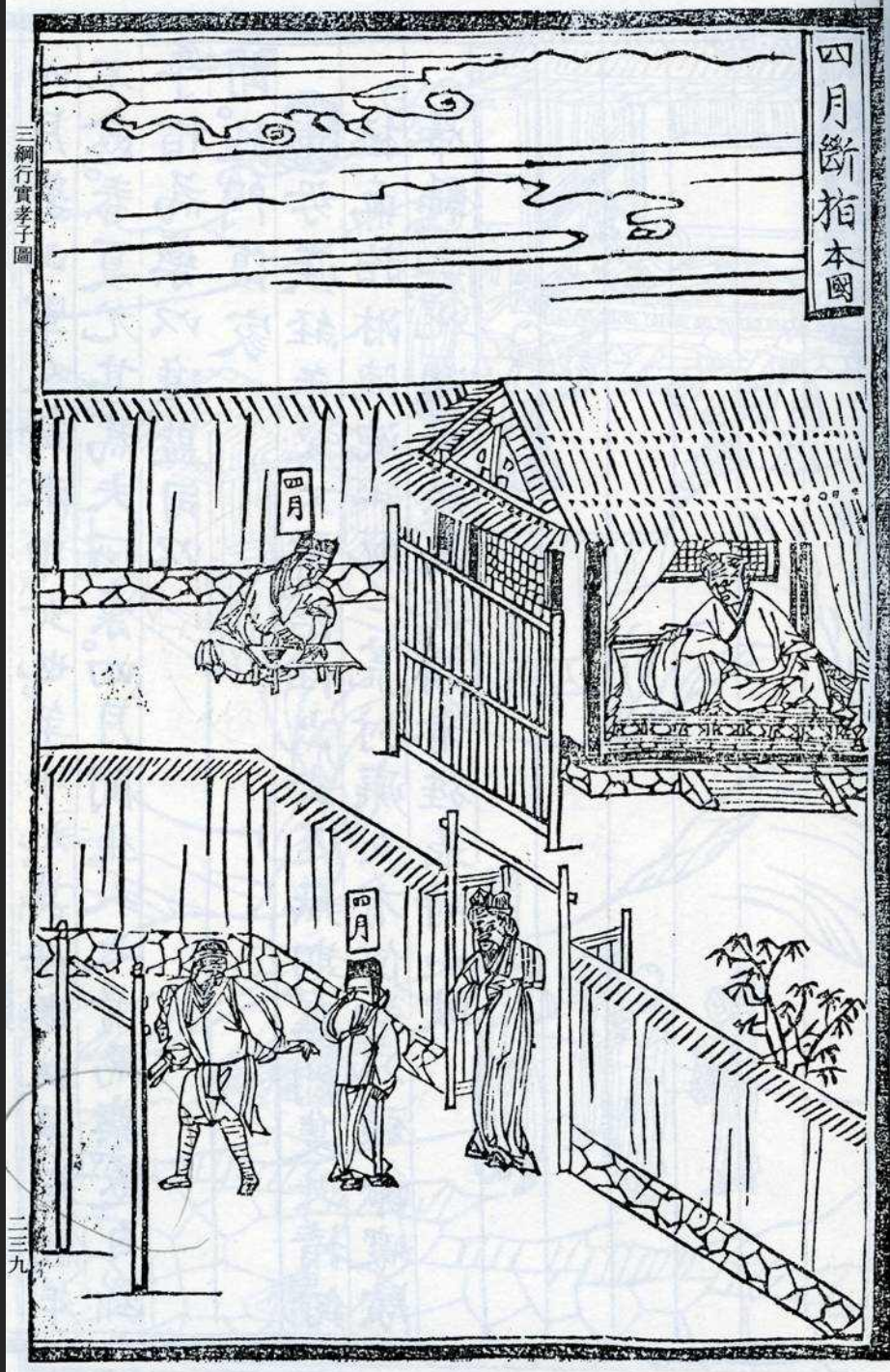


三三九

“삼강행실도”, ‘효자편’
<사월단지(四月斷指)>



“삼강행실도”, ‘효자편’
<사월단지(四月斷指)>



“삼강행실도”, ‘효자편’
<사월단지(四月斷指)>

老萊斑衣楚



老萊子。楚人也。孝奉二親。行年七十。作嬰兒戲。身著五色斑斕之衣。嘗取水上堂。詐跌仆卧地。為小兒啼。弄雛於親側。欲親之喜。

孝養雙親志不違。行年七十奉親闈。只求父母心忻悅。詐作兒啼戲綵衣。大孝終身只慕親。老萊行義更無倫。弄雛親側令親喜。千載清風動世人。

在人情理必感衰年。兒已老矣。親豈安然。故昔萊子思悅其親。親俱百歲。已且七旬。綵服闌斑。兒啼兒戲。白髮朱顏。春風和氣。

“삼강행실도”, ‘효자편’, <노래반의(老萊班衣)>



<세종실록> 세종 14년 6월 9일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興起) 시키지 못하는 일도 많다. 내가 그 중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주고 우매한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觀感而興起”

(“觀識而興起”)

권채(權採), <三綱行實圖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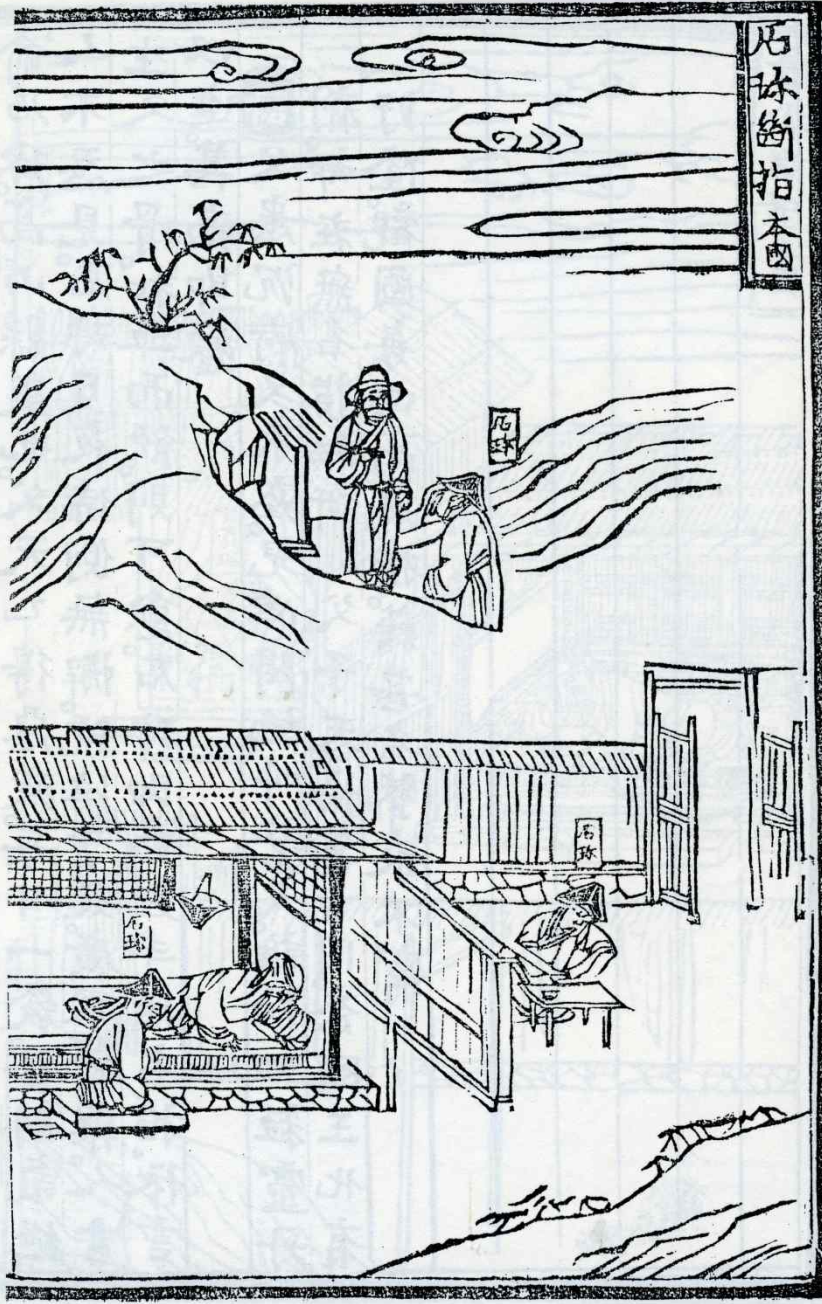
“어진 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어린이, 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1)즐거 보고 익히 들으며, (2)그 그림을 구경하여 그 형용을 상상하고, (3)그 시를 읊어서 인정과 성품을 본받게 한다면, 흠선(歆羨)하고 감탄하고 사모(思慕)하여서 권면(勸勉)과 격려로 그들의 다 같은 본연의 선심(善心)이 감발(感發)되어 자기들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1) 樂觀而習聞

(2) 披玩其圖 以想形容(그림은 상상의 근거)

(3) 諷詠其詩 以體情性

石珍斷指本圖



유석진(兪石珍)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石珍斷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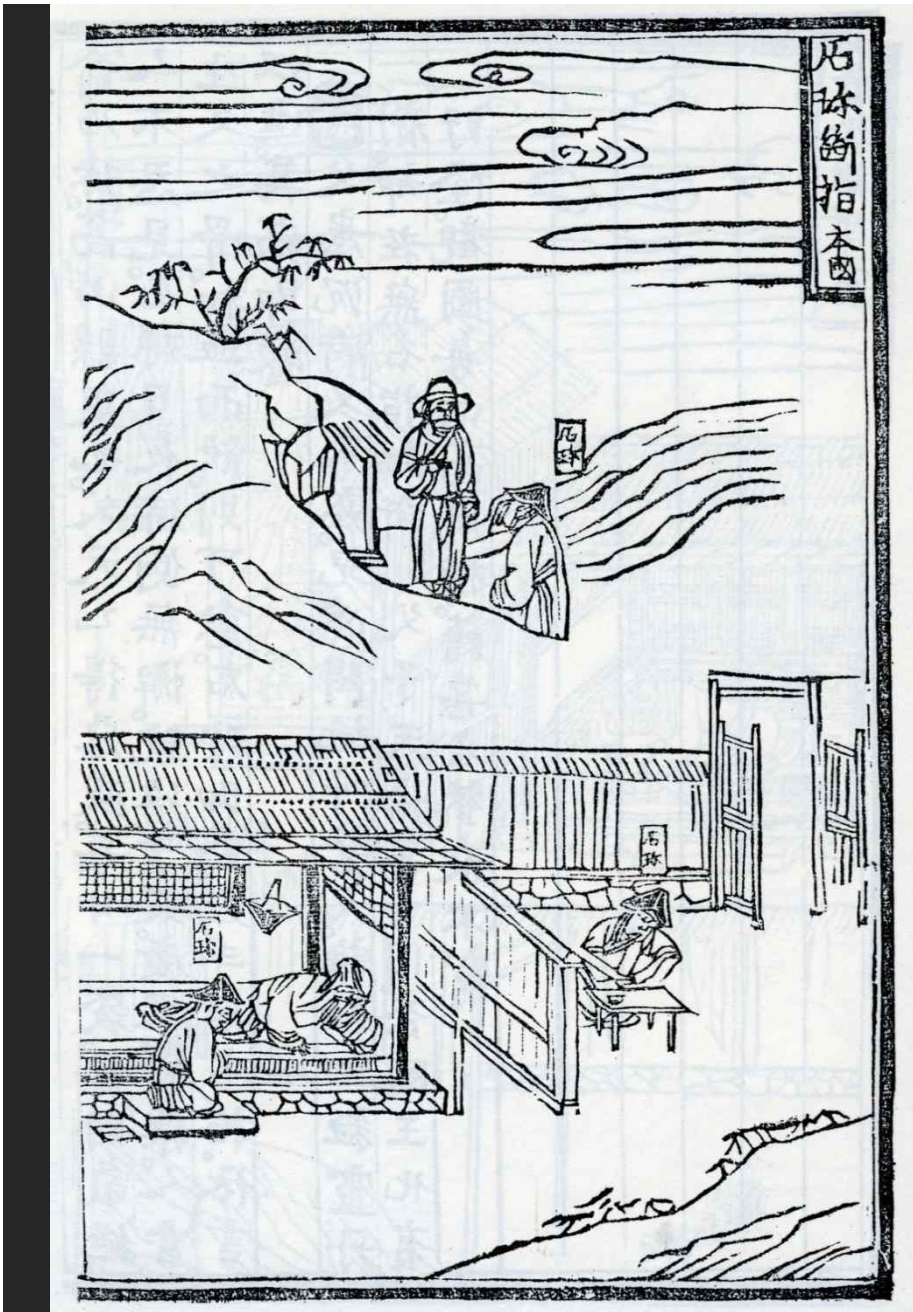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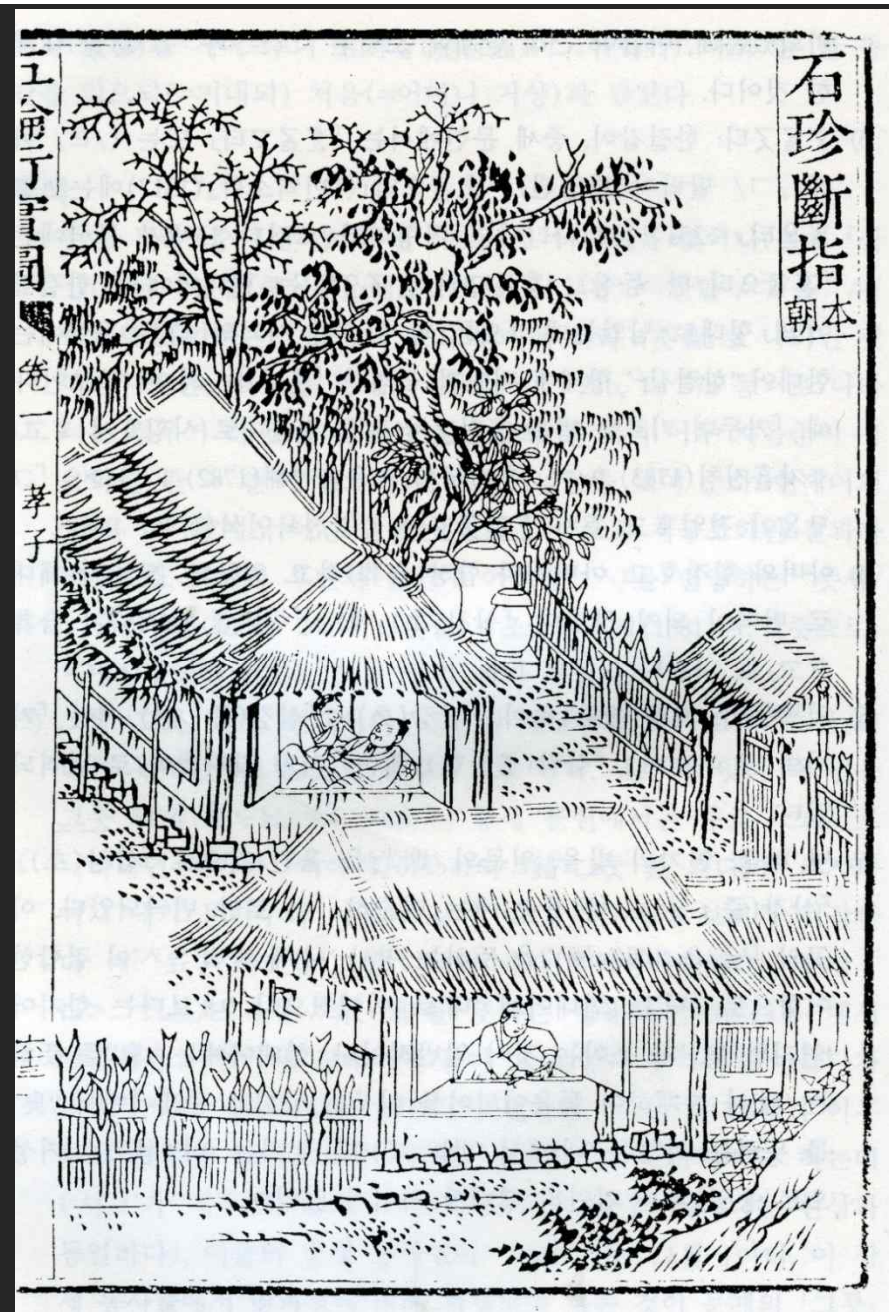
유석진(兪石珍)의 정려비각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유석진의 정려비(旌閭碑)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오륜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石珍斷指>, 1797년 간행본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오륜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石珍斷指>, 1797년 간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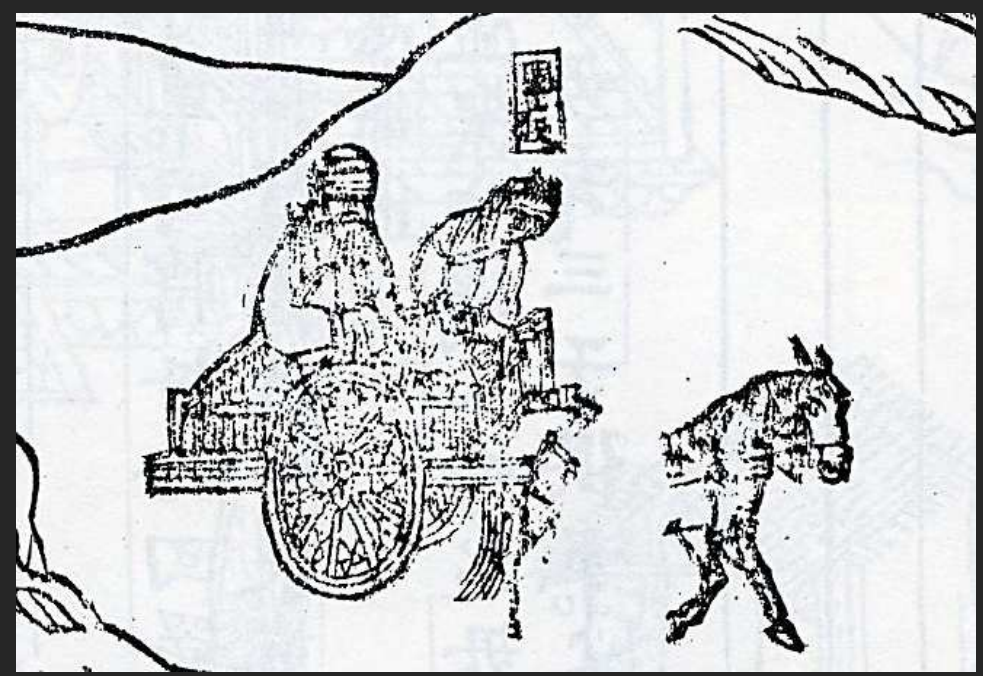
石珍斷指
朝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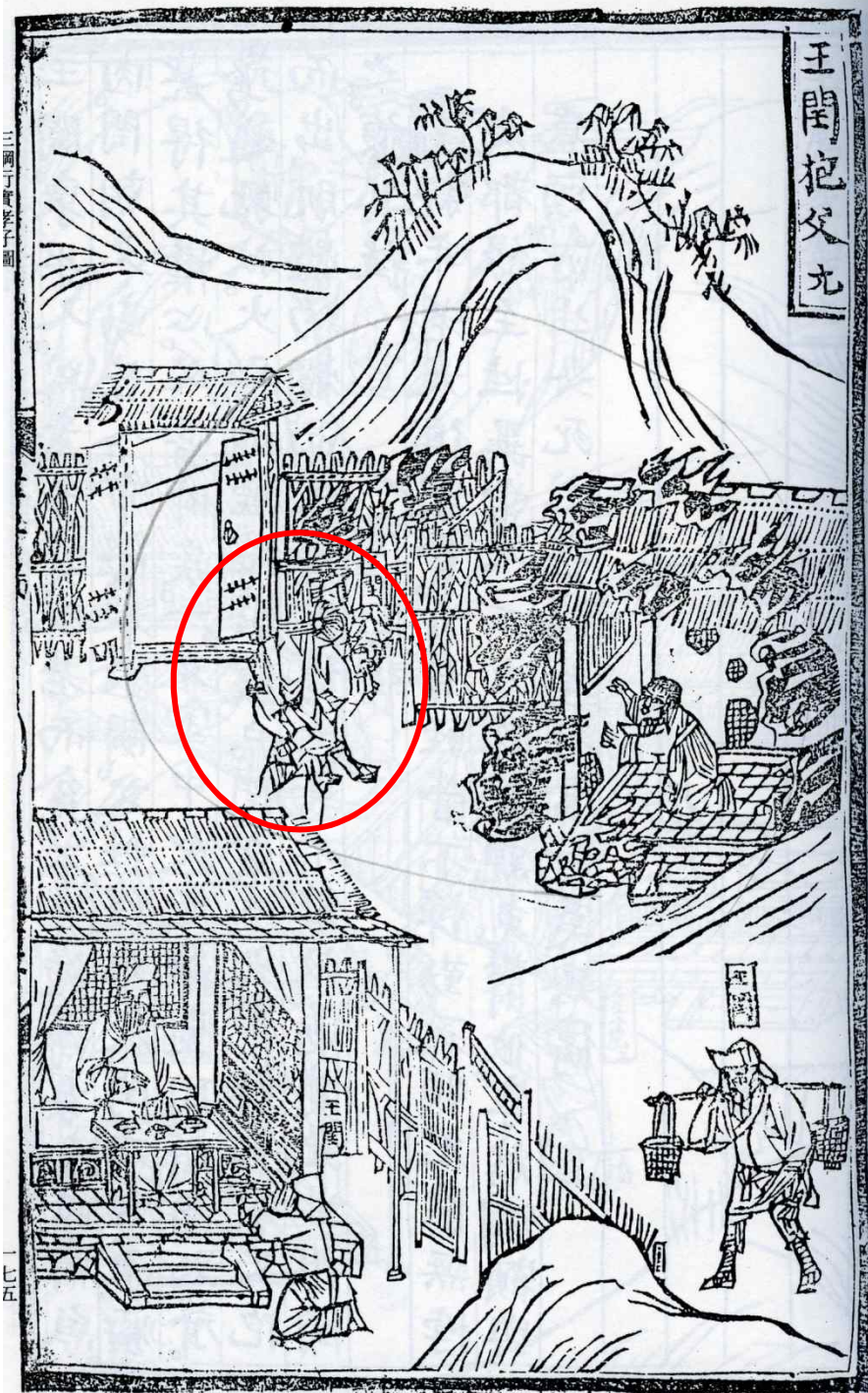
<석진단지>, 조선 18세기, 삼성미술관 Leeum



閔損單衣魯



민손단의(閔損單衣) 민손의 흘옷



왕운이 아버지를 업고 나오다



김중강이 저머셔야 비추
 거늘어 미물호도호위브
 데거술변인면디나미
 주근말만다 이거상후
 아비물음며다가호되
 고시묘살제삼년음선아
 나신더니거상호호도아
 비위후야삼년사로려호
 거늘거지브덕아미
 마고음브디고구티연
 의오거늘호안이노라호
 고하호호브면적
 이별도라가사호
 되엿고호우호호호호
 리면호호호호호호호
 지어주어늘삼년호호



自強伏塚本圖



塚本圖

자강복총(自強伏塚)

婦人 斷指의可否(一)
時評 迷信에不過

병이 났고 아니 났든 것은 그 병의 경중에 매이것이며 또 약을 잘 쓰고 아니 쓰든 때 매이것이 아니다. 또 간혹 주일하게 하는 것도 물론 만호상편의 잇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신비(神秘的)의로함을 또는 신을 감동 시켜서 병을 크게 한다는 것은 오직 몽매한 아만인들만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로는 신이라든 것은 원래 미개한 시대에서 광물의 허탄하게 상상하여오 것이니 문명사대에 와서는 그것의 잇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못그려온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을 연구서 효상을 표하는 것은 아만의의의의의라고 할 수 잇습니다. 혹은 말하되 단지는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 고 종교학에서 효상은 피가 힘종의약의 성질을 가져서 그것이 이익이 가는 사물을 회생시키는

게 되는 것이 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모든 거입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의학의 발달이 발달하여 잇서서 무엇이든 병에 잇는 효험이 잇고 잇다. 그것은 실험 또는 기리연구로 시 증명할 수 잇습니다. 피 몇 방울을 먹으면 사라져 가는 생명이다 시 소생할 수 잇다는 것의 의의 화상으로 증명되기 전에 그 말은 물론 미신입니다. 그런데 의화상으로든 그러한 것이 조종도 증명되지 아니하면 아니라 그 열리가 만무한 것은 신비인으로서는 다의심하지 아니 하는 바입니다. 또 혹은 어떤 단지는 하여 피를 먹어 더은 후 회생한 실험이 잇다고 하여 그것을 믿어 그것의 미신이 아닌 것을 실험하는 사람이 잇습니다. 마는 아모치기를 아니 하되도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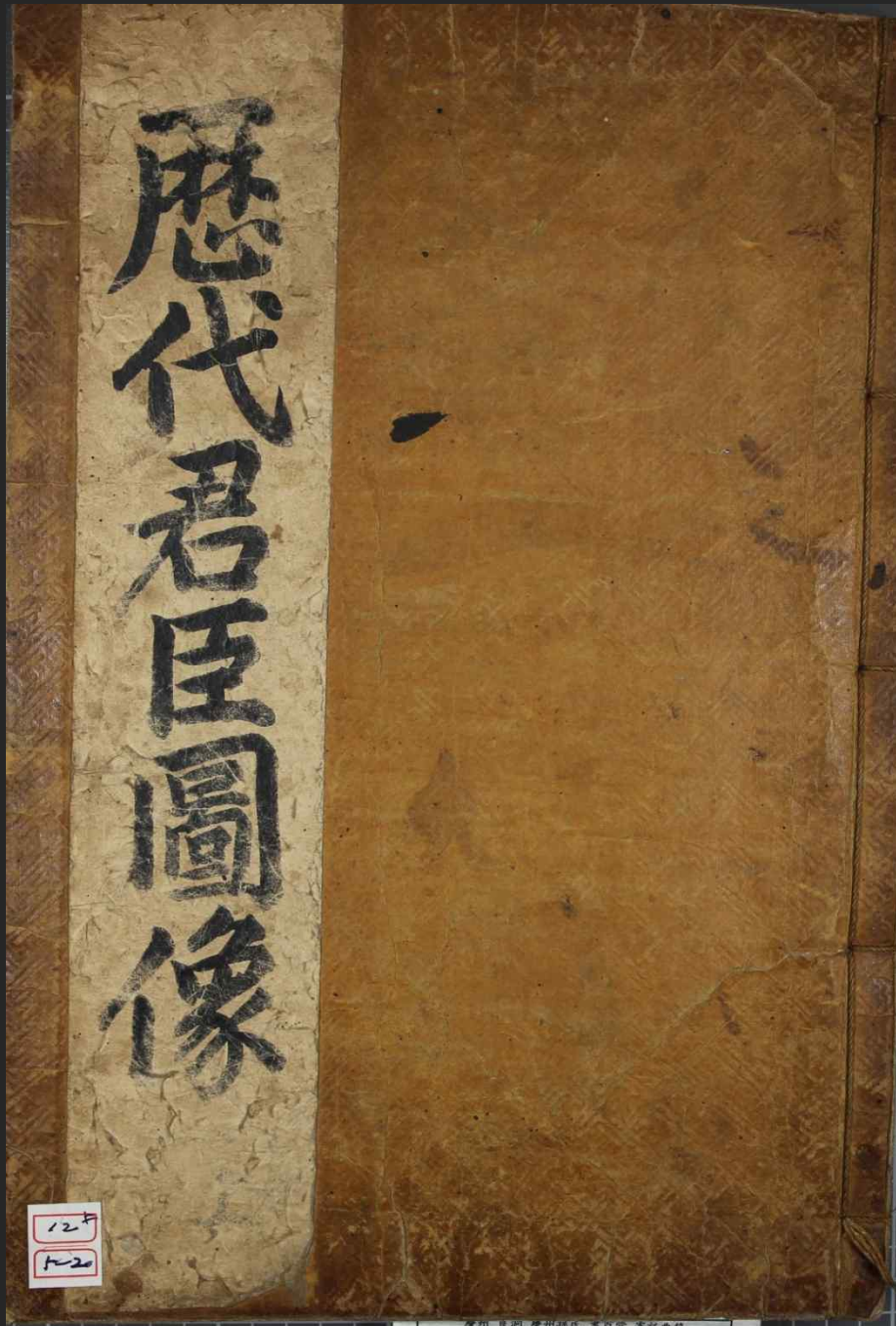
히 소생하는 수도 잇는 것이 니 일 이 때로 처 된 부를 증명 하는 것은 실험이 상이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잇다고 할 수 잇는 것이 니다.
그럼으로 부모병에 단지한 것을 큰 효행이라고 하여 신비에서 양한다 또는 유자가 상을 주 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 입니다. 그것은 죄업으로 미신을 장려 하는 것 입니다. 그와가 처장려 하고 보면 부모병에 단지하지 아니하면 불효로 판심한 일 이니 나중에는 실험도 단지하게 외 지 됩니다. 우에서 도 말한 바와 가 처 부모를 의하는 그 칭찬에 대하여서는 정의를 표할 만 하지만은 종교학을 연구하는 그 행동에 대하여서는 잘못이며 무의한 짓임을 지적 하여야 할 줄입니다. 그래서 부모병에 단지 하였다든 사실이다 시는 잇서 지도를 구할 하여야 합니다. (끝)

婦人 斷指의可否(二)
時評 迷信에不過

신비적인 종교적 요소가 있다 (孝子 孝女)의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소생 한다. 그런데 그 수는 그 부모가 병으로 운명하게 되었을 때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소생하여 피를 먹여서 잇는 것이다. 어찌 부모를 소생하게 하였다는 보도가 만습니다. 차림도 신비의 도그와가 아니라 하나 가 났스 니 시 때 이 사동호해관주의 의를 위함이라든 집전주는 자 괴어 마니가 실험할 전 부러우 면 하 병에 걸리어 신유하다가 잠기가 운명하게 처지 되었습 으로 이의 효정의 발하여 그 무

평지를 먹여 피를 먹여 자 괴어 마니의 의의 더는 바 어머니 는 과연 한 가지 행되었다고 하 니다.
일단 생각하면 이와 같은 행동 은 아모든 단지가 단지에 찬양 하지도 하게 생각 됩니다. 자 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 하여는 아모든 단지가 보지 아니 하고 또는 의병신 되는 것 도 도리다 보지 아니 하고 찬인 하게 자 괴의 손과 입을 스스스로 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적인 것으로 보아서 파서 아들이나 딸이

니다. 케를 증명하여야는 부모도 형제도 이웃사람도 다 불교하 는 한 사회의 일반사람 들과 비교할 때 누가 그 순정에 따라 아 경복하지 아니할 수 잇겠습 닷가 그려나우려는 이 문대를 그 때로 정대로 보아서 아를 단 지고만 하여 버려서는 아니 됩 니다. 다시 한결을 나아가서 생 각하여야 할 것이 잇스니 과연 다지는 운명하는 부모를 회생 시키는 효력이 잇는 것 일가.
만약 그것이 아모효파가 잇는 것 이라 하면 그 칭찬에 잇서서 여 하히 아를 단지 할 지라도 부모 를 위하여 단지하는 것은 결코 밑중의 어떠한 것 에 불과한 니다. 그리고 그 효파가 더화한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종가
1526년(-493)



“역대군신도상첩”, 주무왕, 1526년



“역대도상첩” 주무왕

“因像而求心”



역대군신도상첩, 주문왕(周文王)

“觀感而興起”



삼강행실도, 노래반의(老萊班衣)

孝

黃香扇枕

大舜彈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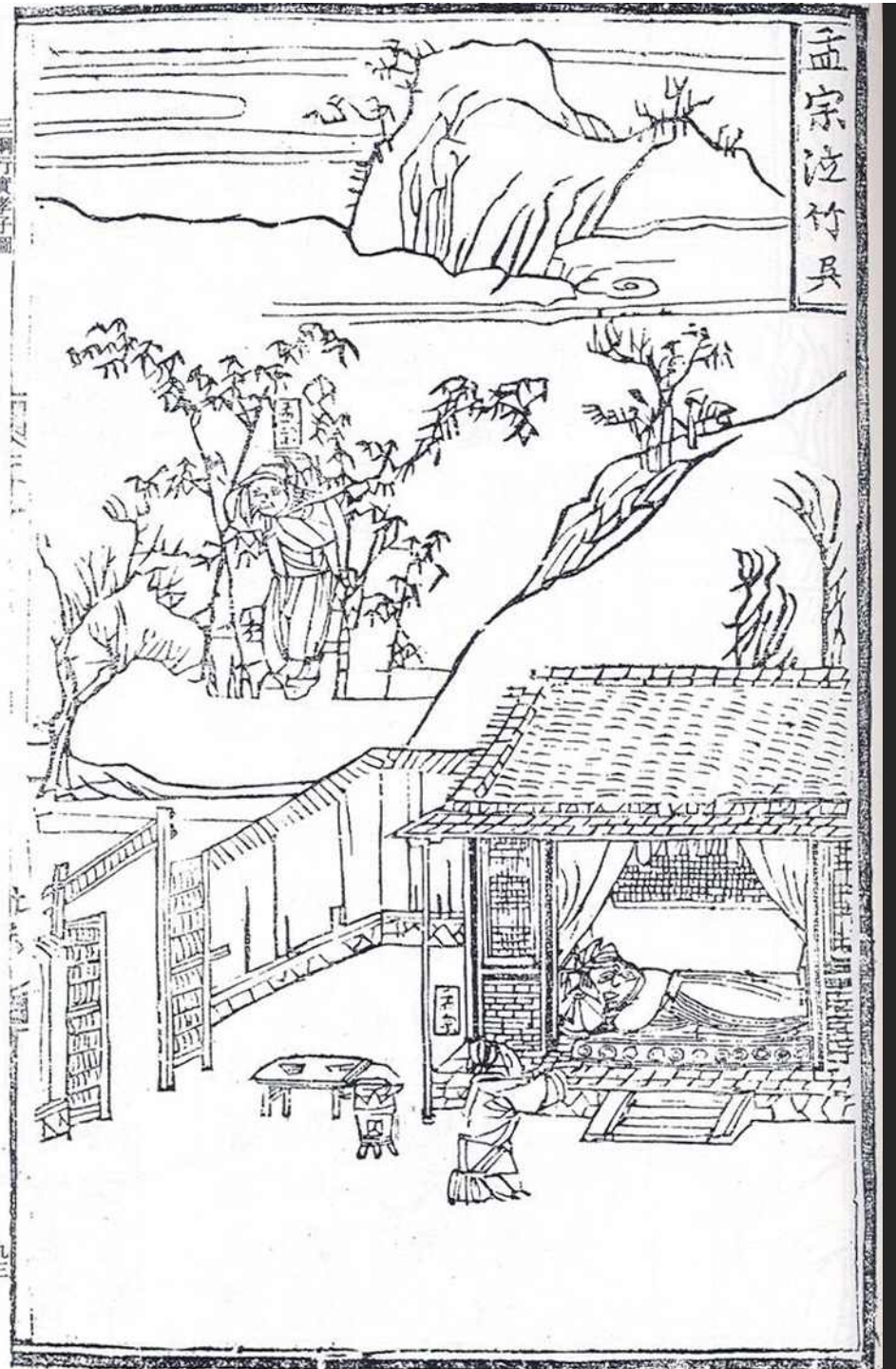


孟宗泣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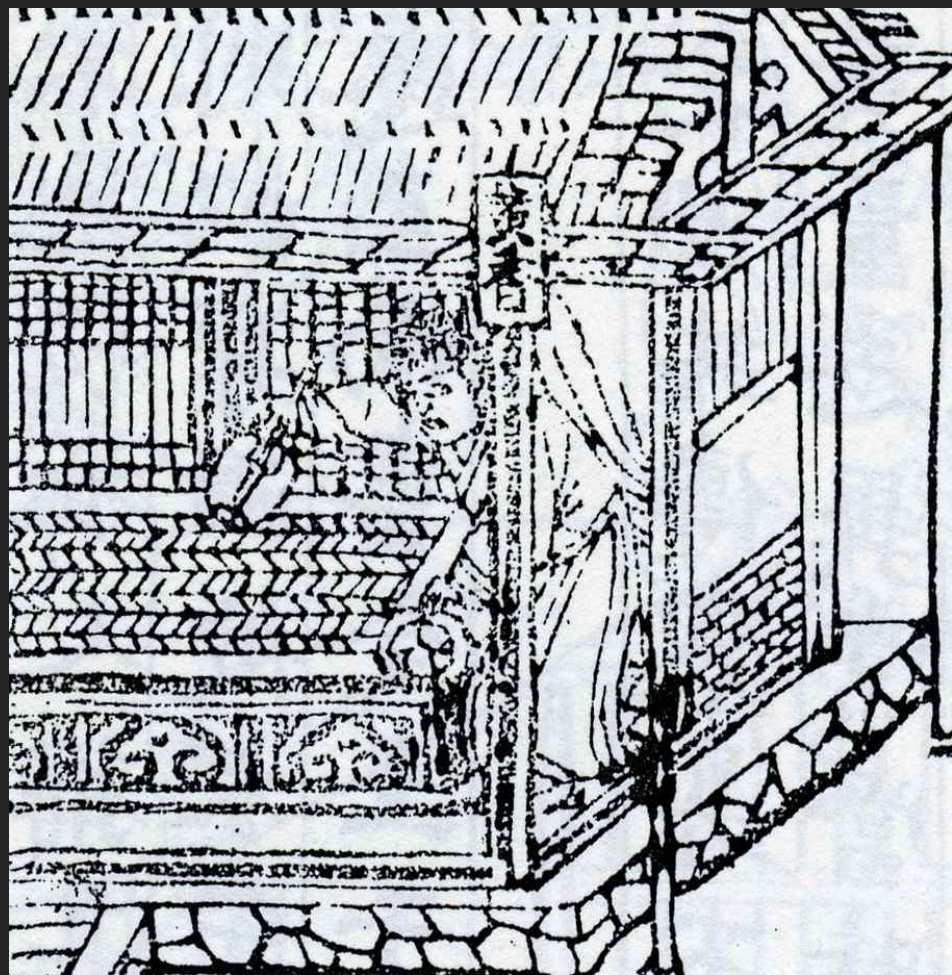
王祥剖冰



孟宗泣竹 吳



黃香扇枕 漢



王祥剖冰 晉



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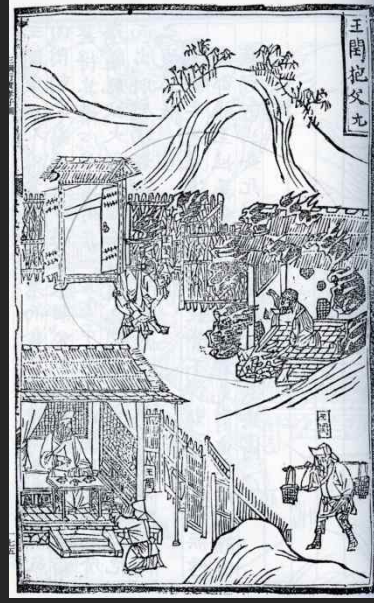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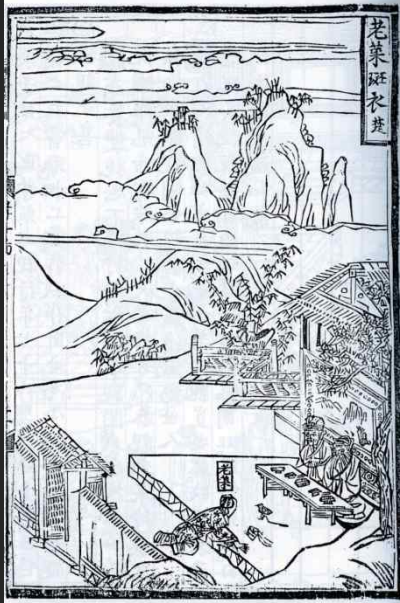
黃香扇枕

大舜彈琴



孟宗泣竹

王祥剖冰



노래반의(老萊班衣) 오맹문서(吳猛蚊噬) 왕윤포부(王閏抱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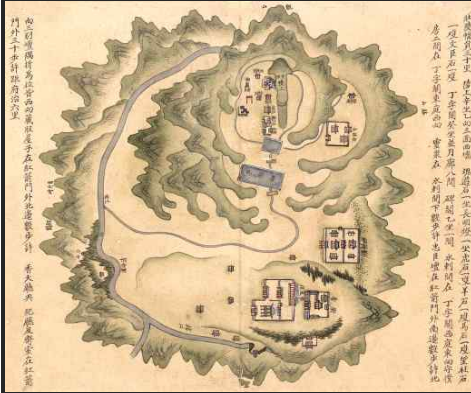


곽거매자(郭巨埋子) 석진단지(石珍斷指) 민손단의(閔損單衣)

기타 왕실의 시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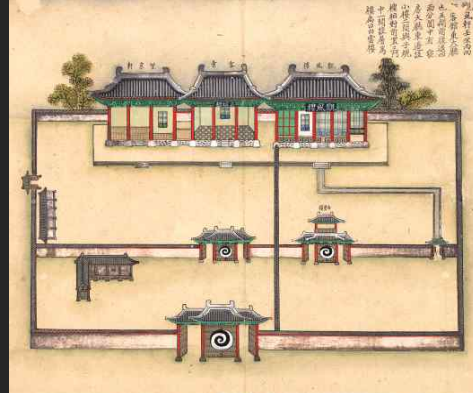
越中圖, 1791년(정조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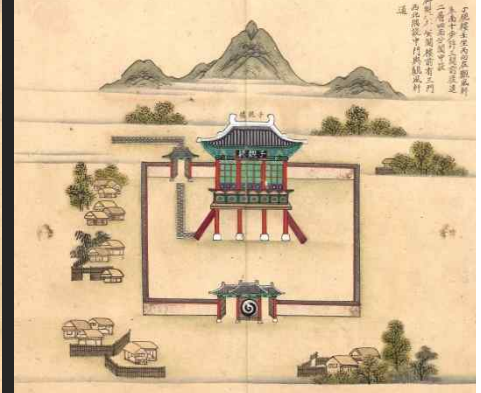
1. 장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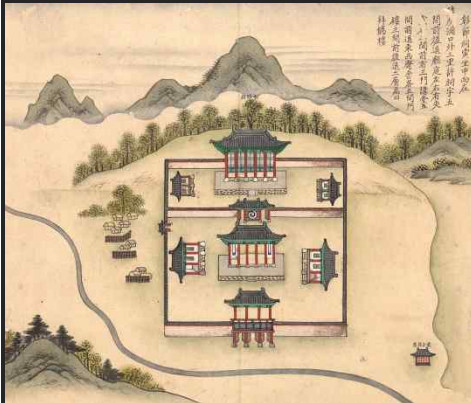
2. 청령포도



3. 관풍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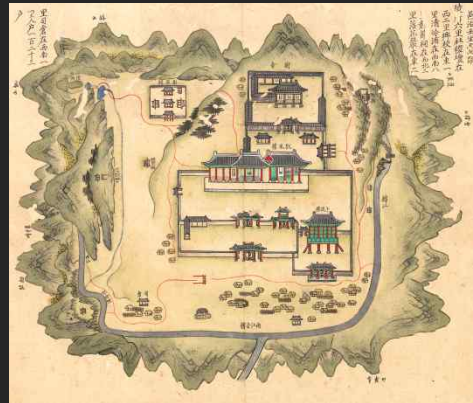
4. 자규루도



5. 창절사도



6. 낙화암도



7. 읍치도



8. 영월도

《월중도》의 영·정조대 사적 건립 및 중수 연도

화첩의 면수	사적	건립 및 중수 연도	책임 관료
제1폭 장릉도	장릉비 건립	1733년(영조 9)	
	장릉 배식단(配食壇)	1791년(정조 15) 건립	
제2폭 청령포도	금표비(禁標碑)	1726년(영조 2)	
	단묘유지비(端廟遺址碑)	1763년(영조 39)	
	비각(碑閣)의 단(壇)	1791년(정조 15)	영월부사 朴基正
제3폭 관풍헌도	관풍헌(觀風軒)	1791년(정조 15)	영월부사 朴基正
제4폭 자규루도	자규루(子規樓)	1791년(정조 15)	강원도관찰사 尹師國
제5폭 창절사도	창절사·배견루 보수	1788년(정조 12)	강원도관찰사 金載贊
	엄흥도(嚴興道) 비각	1726년(영조 2)	
제6폭 낙화암도	낙화암비(落花巖碑)	1742년(영조 18)	영월부사 洪聖輔
	민충사(愍忠祠) 편액	1749년(영조 25)	영월부사 金應福
	민충사(愍忠祠) 중수	1758년(영조 34)	
	민충사(愍忠祠) 개건	1791년(정조 15)	강원도관찰사 尹師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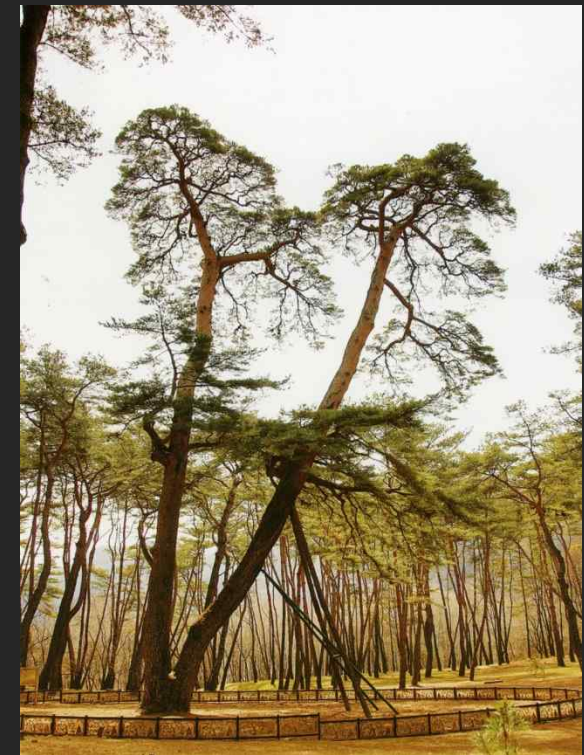
청령포 전경



“清冷浦禁標” 1726년



“端廟在本府時遺址” 1763년



“관음송(觀音松)”

세종시대의 윤리교과서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돌에 새긴 역사
- 조선왕실의 탁본



감사합니다.